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AUG 21 1981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71 1981년7월2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July 21. 1981

캐나다이민길튼 선구자전택보씨1주기

64년 연방정부와 접촉, 66년 이민1호 출발

"…답장이 늦어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민성이 한국서 이민 희망자를 면접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회답을 보류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서의 이민자를 심사할 준비를 완료했읍니다. 이민규정의 사본을 동봉합니다…"

15년전인 64년7월2일 캐나다연방정부「시민및 이민성」의 이스비스터(C. M. Isbister)차관이 서울 천우사(무역회사) 전택보 사장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한국으로부터 이민자를 받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사가 표현된 이 편지로써 캐나다 대량이민의 문이 열려 그 수가 전국적으로 4만여명을 헤아리게 된 것이다.

이스비스터 차관으로 하여금 이같은 공식서한을 발송하게 한 전사장— 캐나다 한국이민의 발판을 닦은 선구자 전사장은 작년 7월 아깝게타계했다. 그는 불행히도 캐나다교포들로부터 공식적인 선구자 대우를 한번도 못받았고, 캐나다에 거주한 적도 없다.

그의 공적을 소중히 생각하는 일부 교포인사와 가족(동생 전택균씨, 조카사위 윤호영씨)들은 그의 1주기를 맞아 지난 18일 토론토임마누엘교회에서 추도예배를 가졌다.

이날 설교를 맡은 서금찬 목사는 고인의 경제인·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뛰어난 수완과 높은 인격.봉사 활동 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남미및 캐나다에 한인이민의 길을 터준 은인임을 강조했다. 일본 고베고상 동창인 함필용옹은 고인의 학창시절및 청년시절의 일화와 중·장년시절의 경제·문화면의 활약상등을 소개하고 추도문을 낭독했다.

유가족측을 대표하여 고인의 아우 전택균 장로는 "작년 한국정부가 형님에게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캐나다이민의 문을 연 전택보씨. 그는 80세이던 작년 7월18일 한양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을 수여키로 결정, 총무처장관등 몇몇 고관이 그것을 통지하기 위해 형님댁을 방문했다가 집이 너무 검소하고, 가재도구도 평범한데 깜짝 놀랐다. 천우사장쯤 되는 대경제인의 저택이니 으레히 으리으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형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으며 감명을받았다고 술회한 일화가 있다"고 밝혔다.

1901년 함경남도 문천에서 태어난 전택보씨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당시 함경도에는 캐나다선교사들이 와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캐나다를 알고 있었고, 그후 간도 용정을 거쳐 월남, 서울서 대경제인이 된 후에도 한국의 넘치는 인구를 해외에 이주시키는 꿈을 간직했었다.

전박사(명예경제학박사)는 64년초를 전후, 세계가족협회 부회장으로 한국에 왔던 캐네디안 캐드베르씨에게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 가능성을 타진했었고, 고국에 돌아간 캐드베르씨는 전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었었다. 당시 캐나다는 연간 이민한도수를 책정하는 쿼타제도를 쓰고 있었다. 캐드베르씨는 전사장에게 캐나다정부와의 교섭을 제의했지만 전사장은 개인신분으로 한 국가의 정부와 교섭할 수는 없었다.

전박사는 64년과 66년 두차례에 걸쳐 캐나다를 방문했다. 사업목적도 있었지만 이민의 길을 뚫어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마침내 꿈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 64년 국회의원 박준규, 동아일보 김상만 사장과 함께 영국정부 초청으로 영국에 간 전박사는 영국외무차관의 소개로 캐나다 이민성을 처음 찾아왔다. 이때 만난 사람이 이스비스터 차관이었다.(한국일보 78년5월30일자 「나의 이력서」 참조※) 그는 한국인들이 캐나다에 올 수 있는 길을 물었고, 특히농학도들의 농장유학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답변이 이스비스터 차관의 7월2일자 서한이었다. 캐나다는 대체로 교육과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을 받으며,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직계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고 차관은 설명했다.

이민성은 홍콩주재 캐나다총영사관이 한국이민 심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전박사는 천우사 홍콩지점장 오정익씨에게 연락하여 캐나다총영사관과 접촉하도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65년 홍콩주재 이민관이 서울을 첫방문했고, 66년부터 매월 1번씩 와서 약 1백명씩 처리했다.

이곳 온타리오이민사연구소(Multi-Cultural History Society of Ontorio)의 아시아계이민사 연구원이며 동부설 연구도서관장 김정근씨는 전박사의 공을 치하, "그는 이민의 뚜껑을 열어준 공로자였다"고 말했다.

김씨에 의하면 이때 한인들의 이민을 도와준 서울의 징검다리 단체는 「서울YMCA 캐나다이민위원회」와 「코리아·캐나다문화협회」였다. 이민위원회는 전박사가 회장, 김창열(현 토론토·코리안YMCA 총무) 씨가 사무국장, 이사는 최태섭, 주요한씨등 7명이었다. 이들은 「캐나다의 밤」행사, 이민강좌등을 주최했다.

코리아·캐나다문화협회는 최태섭(인천판유리 사장)씨가 위원장이었다. 김창열씨는 두 단체를 통해 캐나다에 이민가기 위해 필히 접촉해야할 인물이었다.

홍콩서 온 이민관들은 처음에는 천우사, 얼마후 서울Y에서 사무실을 얻어 쓰다가 나중에는 반도호텔에서 이민 희망자를 심사했다.

서울서 면접받은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캐나다로 떠난 것은 66년말께였다. 한국으로부터의 직접이민 1호인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캐나다 한국이민 15년 역사의 서장이 시작된 것이다.

(계속)

과도운영진 선정

한인회공백메울 임시기구

한인회정상화대책위원회는 17일밤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한인회과도운영위원으로 구상회(의학박사), 박인순(오리엔탈·팔레스 사장), 장순채(아리랑식당 사장), 강신봉(전 한인회장), 이영현(영리무역 사장)씨의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정된 함병섭·문가자 부이사장, 장인철·장영채·이영목 이사의 5명과 함께 새 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한인회를 임시운영한다.

이날 16명의 위원과 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위원회는 강우석·박태식 회장단과 최양욱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이냐? 여부를 싸고 장시간 논란, 결국 이들의 사표는 전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사회를 맡은 강신봉 전회장은 "이사회는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없다. 이들의 사표는 이사회에 보고된 순간 수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오9시15분 이 문제를 재거론할 것을 선포했다.

강우석 회장과 박태식 부회장은 이미 사표를 냈으나 이사장단의 동시사임을 요구, "이들이 사임하지 않는한 우리는 사의를 철회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와중 최이사장은 "한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다"는 뜻에서 지난 11일 사표를 냈다(※ 한국일보 14일자).

정상화대책위는 지난 5월 이사회가 한인회장단을 불신임하고, 회장단은 이사회를 해체한다고 맞서 한인회 분규가 계속되자 "한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전권을 맡아 수습한다"는 취지에서 이사회 결의로 창설된 기구이다. 위원은 전회장단, 전 이사장및 사회유지급등 23명이다.

우편협상 난항

22일째 계속된 우편파업은 단시일내 해결될 전망이 없다.

알렌·골드판사를 중재자로한 협상은 3일째 계속됐으나 정부측과 노조측은 아직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않고 있다. 골드 판사는 20일 협상진전이나 협상이 얼마나 더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이 협상은 무척 힘들고 복잡하며, 장기간을 요한다"고 골드판사는 말했다.

연방의회는 자유당 의사대로 지난 17일부터 장기휴회에 돌입했기 때문에양측은 파업조기 해결에대한 강력한 압력을 안받고있다.

우편노조(CUPW)본부는 2만4천명의 노조원이 일치단결, 노조간부진의 뒤를밀고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업계에서 파업종료 압력이 예상외로 작아 종전의 협상자세를 굽히지 않고있다.

한 정부관리는 "지난주까지 업계의 반응은 조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이 오래갈경우, 노조 내부에서 노조간부진에대한 반발이 일기를 기대, 강제 직장복귀 입법을 거부했었다.

20일까지 부각된 최대쟁점은 12번째 유급공휴일, 5년근무후 4주휴가, 17주간의 임산부휴가, 야간근무자 수당인상의 4 가지로 좁혀졌다.

우편배달부 노조와 같이 시간당 임금을 70센트올려 시간당 10·03달러로 하는 것은 이미 정부측이 수락했다.

미스·캐나다는 2위

미스 유니버스에 「곤드」양

토론토에 사는 미스·캐나다 도미니크·두포(22)양이 20일 뉴욕미인대회에서 영예의 2위에 당선됐다.

세계 76국 미녀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서 막이 오른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의 여왕에는 아일린·곤드 미스 베네주엘라가뽑혔다.

이날 2위에 입상한 미스·캐나다 도미니크·두포(몬트리얼)양은 트루도 캐나다수상 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수상이 캐네디안으로서의 긍지를 보여 주었다고 칭찬했어요"하며 "혹시 데이트 신청은 안받았나"는 기자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직업모델인 두포양은 몬트리얼에 4형제가 살고있으며, 약혼자는 없고 특정 보이프랜드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대회 에서 미스코리아 이은정양은 12명이 뽑히는 본선에 진출치 못했다.

심사위원 중에는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장강재한국일보 회장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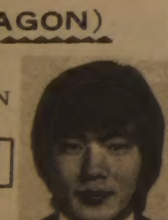
◇세계 미의 정상에 오른 순간의 남미미녀 아이린·곤드양(베네즈웰라)이 두 손 처들어 감격을 표시하고 있다. 오른쪽은 2위 당선자 캐나다의 도미니크·두포양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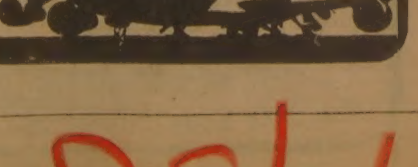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미국 고금리정책 고집

7국수뇌회담 별무성과?

(오타와) 20일 쾌벡주몬테벨로 휴양지에서 열린 서방7국 경제정상회담에서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비난하는 서방국들에게 "현재 고려중인 다른 경제방안이 인프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면 고금리 정책을 전환하겠으나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내릴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서독의 슈미트수상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금리때문에 예수 탄생이래 가장 높은 금리가 서유럽을 휩쓸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의 실업자는 천만명에 달하고 서유럽 각국의 화폐가치는 점점떨어지고 있다고 레이건 미대통령을 공격했다.

회담 첫날인 20일에는 경제문제외에 점점 가속화되는 새로운 중동전쟁가능성문제, 소련의 군비확장책에 대비하는 동서문제(공산진영국들과 서방진영 국가들의 문제)등이 토의됐다.

20일 본회담후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서방7국들은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이스라엘과 PLO, 시리아간의 격돌을 우려, "관계국들은 더 이상의 전투확대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기지를 공격,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21일까지 열리는 이회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캐나다등 7국의 수뇌들과 EEC(유럽공동시장)대표 개스톤·트른의장이 참석했다.

정상회담전인 19일 서독 헬밋·슈미트 수상은 프랑스 프란시스·미테랑 대통령과 사전회담을 갖고 미국의 경제정책을 집중공격키로 약속했었다.

최근 캐나다등 서방국들은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서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고 비난해 왔다.

레이건 미대통령을 수행한 헤이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절대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루도 수상은 본회담후 영국 마가렛·대처 수상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헌법개정안에 관한 영국정부의 관심사를 토의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헌법개정안은 영국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개정된다.

서방7국 경제정상회담은 차기회담부터 EEC를 제8번째의 회원국으로 받아드려 「8국경제정상회담」으로 호칭된다.

◇20일 만찬회에 나온 EEC대표들—. 왼쪽 두번째부터 EEC토른의장, 스즈끼 일본수상, 슈미트 서독수상, 레이건 미대통령, 트루도 수상,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대처 영국수상, 스파도리니 이태리 대통령. 트루도의 「노·타이」차림이 인상적이다.

조치훈「본인방」차지

221수만에 3집반승

(도쿄17일=연합)24살의 약관 조치훈「명인」이「본인방」을 차지,또 하나 빅타이틀을 추가했다.

17일 일본 시즈오까현·아다미시에서열린 마이니찌신문주최 「본인방」결선대국 6차전에서 조 명인은 마자끼·다께미야 현 본인방을 221수만에 3집반을이겨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로써 조치훈명인은 일본의 3개바둑 빅·타이틀중 2개를 차지, 일본 바둑계의 정상이 되었다.

조치훈군은 이미 작년에 명인위를 차지했다.

조 본인방은 본인방상금 1,200만엔과 대국료 330만엔을 받는다.

조치훈군은 7살에도일, 기다니 문하에서 바둑수업을 받았다. 중국계일해봉 10단에이어 두번째 2관왕이 된 사람은 조군까지 4명에 불과하다.

캐나다 오일값 인상 세계시장값은 내려

세계오일가격 하락추세에도 불구, 캐나다의개스, 오일값은 오르기만 한다.

캐나다정부 관리는 "세계석유시장은 일시적인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추세지만 캐나다 소비자는 국내가격 인상에 대비, 소비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전 이락—이란전쟁과 산유량 감소에 따라 국제원유값은 배럴당 42달러까지 올랐었다.

현재 OPEC(석유수출국연합기구)는 하루 150만배럴을 과잉생산, 세계원유값은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미국의 개소린 가격은 작년도 개론당 1.55달러에서 하락, 현재 1.45달러 선이지만 캐나다의 값은 작년 개론당 1.25달러에서 계속 올라 금년가을까지는 1.80달러까지 오를 추세이다. (미국 1개론은 약3.8 리터이며 캐나다 1개론은 약 4.2리터이다. 또 양국달러의 환율 때문에 아직도 캐나다의 실질가격이 미국보다 낫다.)

사우디·아라비아가리드하는 OPEC국가들은 79년도 이후 원유값을 170%나 올려 서방경제를 인플레이션과 침체 속에 휘말리게 했으며, 이에 따라 아랍국이 서방국에 투자했던 저축한 재산도 평가절하, 산유국들도 손해를 입었다.

원유값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을 때 세계 최대 산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원유를 하루 200만배럴로 증산, 원유값을 배럴당 32달러로 묶었다. 사우디의 공급증가는 다른 산유국의 수출가격을 낮추게 했다.

한편 2년동안 계속된 유가인상은 석유소비 국들의 수요를 79년 이래 7% 나 감소시켰다. 미국의 석유소비도 지난 2년간 17% 나 하락됐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원유공급 과잉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73년 최초의 오일파동 이후 공급과잉, 축소가 반복됐었다.

캐나다의 고가 오일정책은 세계오일 공급추세와는 달라, 별 영향을 안받는다.

연방정부는, 작년부터 고가의 오일가격 정책을 쓰지만 아직도 알버타주는 "세계오일가격보다 싸다"고 항의한다. 알버타주는 이미 하루 12만배럴씩 생산감축, 연방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정부와 재협상중이다.

캐나다는 현재 총소비량의 약 25%를 수입, 연간 70억달러를 원유수입에 지불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작된 오일값 인상정책은 국내소비량을 5% 감축, 알버타 주의 감산량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알버타주는 9월부터 다시 하루 60만 배럴씩 감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일가격의 인상을 감수해야 된다.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캐나디안 랩소디 ⑫

—Canadian Rhapsody—

글·그림 신동헌

캐나다는 가히 동물들의 천국이라고 할만도 하다. 작게는 참새종류의 새나다람쥐, 크게는 곰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않고 잘들 따르는것을 볼 때 넓은 땅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함께 어울려서 사이좋게 살자는 나라같으니 부럽기도 하다.

굳이 흠을잡자면 네발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대체로 한국의 그것들에 비하면모양이나 빛깔이 이쁘지 못하다는 점이다. 공원에가면 검은 다람쥐가 많은데 똘똘이같은 한국다람쥐에 비하면 바보온달과도 같은 멍청한놈들 뿐이다. 참새떼로보이는 새들도 가까이서 보면 까마귀 조카벌쯤이나 될듯싶은 검은새이니 역시 한국의참새에 비하면 귀여움에 있어서 비교가되지 않는다.

짐승뿐 아니라 꽃들도 대체로 캐나다의것은 빛깔은 그런대로 요란한데 향기는 한국것보다못하다.코를 바싹 갖다대도 무슨냄새가 날까말까한 정도의것이 많다. 일설에 의하면자연조건이 너무좋으면 짐승들은 모양이 미워지고, 꽃들은 향기를 잃는다는 말도 있다. 애써 몸치장을하지 않아도,또 향기를 뿜지않아도 잘살게 마련이니짐승들은 구태어 외관을 차리고 허세를부릴 필요가없고, 꽃들도 분바르고 향수를 뿌리는"매춘부같은짓은 안해도 된다는 심보같다.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이 그러할진대 어떤 퇴화현상이 인간들에게도 나타나지 말라는법은 없다. 물론한두세대사이에 무슨 두드러진 결과가 다치리라고는생각되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후의일은 아무도장담 못한다. 겉모양은 그런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지킨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골통의 퇴화다.

한예로 한국에선 젖을뗀지 5년이 될까말까하는 머릿속에 구구를 마구 쑤셔넣어 국민학교 2학년 정도가되면 벌써"이삼은육, 오칠은 삼십오…"하면서 구구가 척척 나오는데, 이곳에선 그러지를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학교때 한국서 이민온 학생이 이곳학교에 편입되어 구구를 줄줄 외우는것을본 동급학생이"네머리는 컴퓨터냐?"고 놀라더라는 얘기는 마구 만들어낸 소리만 같지도 않다. 이곳 국민학교학생들을보면 손에든건 도시락뿐, 책을든것을 별로 본일이없다. 전부 학교에다두고 다닌다고하니 그런교육방식이 과연 오른지 그른지는 나도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환경속에서 자란 캐나다의 청소년들이 그저 연약하기만 한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반증을남긴 청년이 최근 있었다.

◇의족의 마라토너 테리·팍스군

다름아닌 테리·팍스(Terry Fox)군의 일생이 그것이다. 널리 보도 되었기에 독자여러분도 이미 알고있는얘기 이겠으나 하도 감격적이어서 나도 아는대로 요약해서 여기 적겠다.

테리군은 1958년 뱅쿠버에서 태어나 유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청년시절에는 트랙이나 필드나 다잘하는 육상선수였다.

그런데이무슨운명의장난이냐?암은하필이면 그에게서 한쪽다리를 빼앗아간것이다.

4년전의 일이다. 한쪽다리 절단수술을 받고 의족으로 갈아끼운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의족을 끌고 캐나다대륙을 달려 횡단하겠다는 초인간적인 결심을 한 것이다.

자기에게 비운을 안겨다준 암퇴치 연구기금 1백만달러 모금을 목표로하고,

그는 캐나다의 서쪽끝인 핼리팩스(Fali Fax)까지가서 그곳을 시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달리기 시작, 온타리오주의 선더베이(Thunder bay)에까지 도달했을때 다시 암이 재발하였다. 작년 9월의 일이다.

9개월의 투병끝에 온 캐나다 국민의 통절한 기도도 헛되이 사신은 마침내 그의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에 결코 굴하지 않으려는 이 청년의 애절한 호소에 동조하는 운동은 삽시간에 온 캐나다에 번져 그가 23 세의 새파란 나이로 지난6월28일 아침 세상을 떠날때에는 목표액의 무려 24배를 넘는 2천4백여만달러의 기부금이 답지하였다.

우리는 테리군 에게서캐나다인의 강인한 또다른면을 보게된다.

나는 지난6월30일 저녁 이틀전에 테리군이 운명한 로얄콜럼비안 병원앞을 지나면서 베에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을 들을때에 느끼는 감명— 죽어서 승리하는 에그먼트 백작의 생애에 버금가는 한 캐나다 젊은 영웅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없었다. (계속)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㉛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그리고 가축 농장에서나는 고약한 냄새가몇주일동안 그주위에 머물렀다.

산등성이 마저도 부서진 바위돌로 포장이 된것처럼 사슴이 지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슴이 지나간 자리는 어디에나 서로 엇갈려 있어서 이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길은 자국이없는 땅을 단 한평이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이들이 밟고 지나간 탄탄한 바위도 자국이 나있고 어떤것은 발자국이 회색의 편마암 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윈디베이의 주위가 새들에게 넘겨져있을무렵 만삭이된 암사슴들이 베이커레이크와 텔론강 남쪽에있는 평평한 고원지대를 골라서 새끼를 낳고 있었다.

새끼들은 조바심에 차있는 어미 주위에서 꿀꿀거리며 계속 기침을 했다. 조숙한 새끼들은 난지 한시간만 되면 사람보다 더 잘 뛸수가 있고, 북극의여우까지도 쫓아 가는데 힘들 정도가 된다.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 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많은 어미사슴은 이상하게 어미의 본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닥쳐오면 새끼들을 떼어놓고 달아나는일이 허다하다.그래서 어린 새끼들이 혼자서 광활한 평원을 헤매고 다니는것이 보통이다.

길잃은 새끼들은 사람에게 붙어서 몇시간이고 쫓아 다니고 카리브가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새끼들이 특히 혼자남아 있게되면 주위의 사물에 대단한 호기심을갖는 성미가 있다.

새끼 낳는일이 끝나·도 북쪽으로 이 사슴떼를 몰고온 부질없는 충동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이큰떼가 작은떼로 분리되어지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소용돌이처럼 몇마일이나 되는 떼들이 몇일간씩 수백마일의 툰두라를 정처없이 배회하게 된다.

사슴은 집이없다.겨울, 여름 그들은 항상 움직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만한 숫자가 한군데 몰려있으면 그들이 주식으로하는 이끼나 난쟁이버드나무 잎이 곧 없어져서 굶어죽게된다. 그래서 7월의 더운 여름동안 북쪽의 평원은가을바람에 날리는 엉겅퀴처럼 잽싸게 이동하는 침착하지못한 작은 사슴떼로가득차 있다. 그러나 7월말쯤되면 새로운 충동이 이들을 덮치는 것같다.

이것이 종전에 이야기한바 있는 이들의 움직임 인데 아직도 설명할길이없다. 이사슴 그룹들이 갑자기남쪽을 향하여 내려가기로결정한다. 그들이 움직인떼는 점점 커가는데 눈사태가 시작되는것과 똑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는 모든떼를 모아서 함께 움직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행군 기세가 재빠르게 일어난다.

8월초에는 이 움직임이 홍수처럼 변해 버린다. 바렌의 활력소인 흰 사슴떼는 봄에왔던길로 돌아가는데 끝없는 떼들이룬 암사슴과 새끼들이 앞장을선다.

그래서 한여름의 이동은 남쪽의 수림지대 근방에도착할 때까지 속도가 가중하고 사슴떼는 여기서 멈추어서 질서를잃고 파도가 벼랑에부딪쳐 다시 파도를 일구어 밀려오는 파도를혼잡하게 하듯이 사슴떼는혼잡을 이룬다.

거대한 여름떼는 쪼개지고 다시한번 서서히 소용돌이처럼 정처없이 배회한다.

파도와 같이 암사슴때뒤에는 어떤때는 그들과 섞이기도 하고, 베르베트처럼 솜털이달린 굉장하게뿔이자란 숫사슴들이 뒤따라온다. 그런다음 서서히 퇴각이 시작되고 다시한번사슴들은 북쪽으로 올라간다.

아직 겨울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멀었고,또 사슴들은 봄철에 올라갔던만큼북쪽으로 다시올라갈 것이므로 여름철에 이동하는 이유를 아무도 완전하게 설명할수 없다.

아마 모기때문에 여름철에 이동을 하는지 모른다.

모기와 블랙플라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령있는 사람은 급한 볼일이 없는한 여름철에는 몇주일씩 컴컴한 점안에서 꼼짝도하지 않는다.

여름철에 여행하는것은 안개처럼 떼를지어 다니는 이 날개돋친 고문자들의추격으로부터 피해야하는 끈질기고 괴로운 고생의 계절이다.

바렌에선 여름철에 셔츠를 통하여 수없이 물려서 셔츠가 피때문에 살갗에들어붙어있기 때문에 벗겨내는것을 여러번 목격했다.

파리떼는 바렌을 방어하는데 가장 미미한 존재가 아니다.

백인들의 침입으로부터 그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있다.

인간이 피를빨아먹는 파리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면 역시 사슴들이 도망칠수있다는것은 불가능 하다.

파리가 가장심한 계절에는 사슴들은 여간해서 풀을뜯어먹고 쉴수가 없기때문에 수척해져 버린다.

사슴들은 제일높고 바람이 잘 부는 산꼭대기로 피해서 피를 빨리고 죽고싶지 않기 때문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피를빨고 살점을 먹는 파리가 이땅에서 제일 무서운것은 아니다. 두종류의 다른파리가 있는데 둘다 땅벌처럼 크고 색깔이 야하게 화려하다.

단 한마리가 사슴떼에게 날아와도 사람이나 늑대에게는 비교도되지 않을만큼 공포로 떨게한다.

한번은 적은 숫사슴떼가 가파른 강둑에서 조용히풀을 뜯고있는것을 지켜보고 있자니까 사슴떼들이 갑자기 미친듯이 달아나는것을 보았다. 사슴떼는 분산되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머리를 위로 쳐들고 무모하게 부서지고 날카로운 바위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중 한마리는 강쪽으로돌아서서 조금도 주저하는기색도없이 절벽이된 강뚝에서 밑에 낮은 강물로 뛰어내리다가 목이 부러져서죽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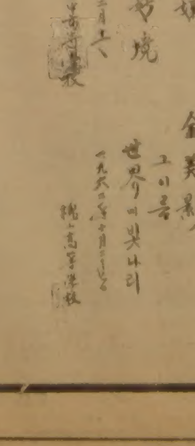
나는 아직도 꿈틀거리는 시체쪽으로 노를저어 가보았더니 거기에서 사슴을죽게만든 장본인을 발견할수 있었다. (계속)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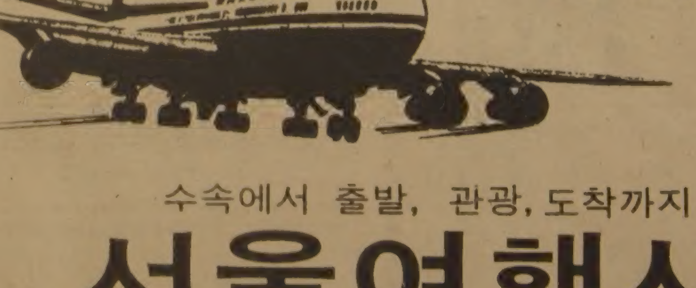
경력 :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학력 : 배화여중·고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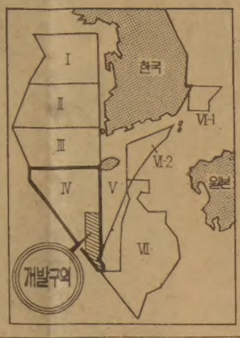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최 동 주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4鑛區 精密탐사결과
天然가스 埋藏확실

내년까지 彈性波탐사
84년에 開發井뚫기로
美 자펙스社、油開公과 共同개발

정부가 올 가을께 探査作業에 들어갈 제4광구 지역에서 天然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자펙스社는 지난 73년 濟州道 남방 2백㎞해역의 제4광구 동남쪽 6천70㎢지역에서 실시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정밀분석한결과 두께2천미터의 제3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단정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자펙스社기술진은 최근 동자부 油開公과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는것이며 동자부 고위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않고있다. 자펙스社는 걸프社가 지난 69년4월부터 77년3월까지 정부와 제4광구개발협력을 맺고 탄성파탐사를 실시했을때 걸프社의 지분중40%를갖고 오는가을께다시 물리탐사를 실시할 4광구 동남쪽지역에서 직접물리탐사를 한바있다. 그러나 자펙스社는 탐사자료를 다시 정밀검사한 결과 천연가스가 나올 가능성이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자 최소한 40만달러이상의 탐사비용과 3백만달러이상의 探査井개발비용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19일 油開公과 공동개발하기로 租鑛協約을 맺고 정부에 조광권을 신청하고있다.

정부의 승인을얻는대로 油開公과 자펙스社는 내년6월까지 탄성파탐사를, 83년6월까지 탐사시추공 1개를 뚫어보고 그결과에 따라 84년6월까지 探査井이나 開發井을 뚫을 계획으로 되어있다.

천연가스는 發熱量이 1만3천3백킬로칼로리로 LPG 1만2천킬로칼로리나 原油의 1만1천킬로칼로리 보다 높으면서 가격이 낮고 공해가 없으며 사용이 편리하고 원유처럼 발전용·산업용·가정용연료로는 물론 화학원료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액화시설에 거액이필요하고 특수수송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초저온(마이너스162도C)으로수송해야하는점이 원유에 비해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營業허가 定數·거리制폐지
政府 請託제거「8개指針」시달
不條理신고 공무원補償制
民願公知제도를 확대실시

정부는「깨끗한정부」의구현을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원을둘러싼賄物수수의 관행적인 봉쇄가 우선돼야한다는판단아래 뇌물수수의 가능성이 높은직책을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행각종 법령과 제도가운데 청탁의 소지가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7일『정부가 그동안 깨끗한정부의 구현을위해 굳은의지를갖고 노력한결과 고위공직자사회에선 현저한성과를 거두고있으나 認·許可나 稅務관계 민원부서등 일부분야에선 아직도 利權과관련한 음성적인 뇌물수수가 이뤄지고 있을뿐아니라 오히려 그방법에서 더욱 음성화되고 규모면에서커지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이같은 부조리를 색출키위해 청원자일을 편파동시에 부조리사실을 신고하는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의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뇌물수수등부조리 가능성이 높은것으로정해지는 직책에 대해서는 청렴도가높은 공무원을 임명하는등의 처방이 뒤따를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관계당국에서 마련, 행정각부처에 시달한 청탁소지등 제거를위한 법령제도개선 8개기본지침은 ▲불합리한 허가억제로 이권화된 사항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호를개방, 특혜와 청탁소지를 제거하고▲행정적인 재량과 주관적인 처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처분기준으로 개선▲각종 영업허가등의 定數制, 거리제, 지역별 할당제등의 제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폐지하며▲각종 의무규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비현실적인 사항은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고있다.

이 기준은 또▲법령에의한 가격, 요금의 승인 허가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품목과 기본생필품 이외에는 전면폐지▲민원인이 행정의 내용과 절차를 몰라 야기되는 불신, 불편, 청탁등을 제거키위해 民願公知제도를 확대실시하며▲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종법령과 제도의 실시, 변경때는 사전에 고토록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업무의 受託대행기관의 정관, 社規, 내규등을 정비, 청탁이나 부조리의 소지를없애도록 하고있다.

柳總裁 오늘歸國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8일간의 中南美순방을마치고 18일하오 KAL便으로 귀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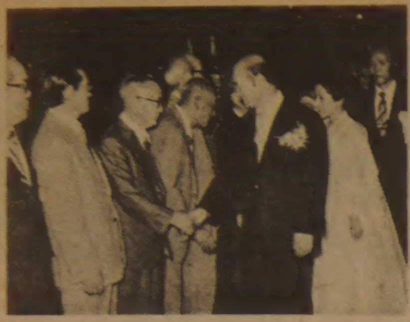
韓·日頂上회담 1월開催 희망
日정부 소식통

【東京16일=聯合】일본정부는 한일간의 현안문제로 되어있는 全斗煥대통령과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간의 한일정상회담을 내년1월께 갖기를 희망하고있다고 일본정부 소식통이 16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일본정부로서는 외상회담과 정기각료회담이 끝나는대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기를희망한다는 종래의 입장에는 아무런변화가 없으나 행정개혁문제를 다루는 임시국회가 올 가을에 열리게 되고 내각개편, 예산편성등의 정치일정이 가을부터 연말까지 차있어 한일정상회담개최시기를 내년1월께로 희망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스즈끼 수상이 全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치못했고 일본내에 반한불순분자들이 많기때문에 스즈끼수상이 한국을방문하는형식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제33주년 제헌절 기념리셉션에 참석한 全斗煥대통령이 제헌국회의원 ... 과 악수를나누고있다.

"法과 秩序속 民主토착
지금은 安定과 成長이 가장重要"
全대통령、制憲節리셉션서

全斗煥 대통령은 17일『제5공화국부터는 名實共히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하고『앞으로 또다시 試行錯誤를 겪는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 리셉션에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 참석, 제헌의원등 참석자들과 환담하는가운데『西方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는 1、2년안에 되는것이아니고 부단한 시행착오와 진통과정을 겪어 이루어질수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특히『민주주의는 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만 胎動할수 있는 법』이라고 밝히고『특권층이 없고 공평하며 자유와평등, 사회정의가 함께 조화를이루어 나갈때 우리국민성에맞는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각자도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제5공화국출범이후 개혁과 안정을병행해왔으며 이제 우리에게 가장중요한것은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이라고 지적하고『모든 분야에서 희망이보이는이때 온국민이 衆智를모아 국가발전을 향해 밀고나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趙治勳名人、本因坊도 쟁취

記事 6면

制憲節 33돌 어제 紀念式

17일은 제33주년 制憲節.

전국 각시도에서는 상오10시 기념식이야 갖가지경축행사를 가졌다. 서울 世宗문화회관에서열린 기념식에는 南悳祐국무총리, 俞泰興대법원장, 蔡汶植국회의장직무대리등 3부요인과 羅容均제헌동지회장등 제헌국회의원 48명과 시민, 학생등 4천8백여명이 참석했다.

制憲節 경축사
"政權 꼭平和的교체
憲政수호는 歷史的 사명"

全斗煥 대통령은 17일『새헌법은 그동안 우리의 憲政史를 얼룩지게 했던 모든 非理와 모순을 제거했으며 憲政史를통해 한번도 이룩해보지못한 평화적인 政權교체의 길을 확고히 열어놓은것』이라고 전제,『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길을 지켜나가야 하겠으며, 본인은 이길을 앞장서서 걸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헌절 제33주년기념식에서 南悳祐국무총리가 대신읽은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말하고『헌법守護는 우리세대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사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을비롯한 국민여러분의 경건한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밤 무더위에 쫓겨나온 公園의市民들

◇섭씨30도를 넘는무더위가 4일째 기승을부리자 17일밤 서울西小門 공원에는 더위에 쫓겨나온 많은 시민들이 분수대에 둘러앉아 밤이깊는줄을 몰랐다. 이날 시내자풍장은 인산인해였고 시중 얼음값도 무더위를 틈타 20%나폭등했다.

社会漫評

저밑에 「뽀오얀곳」이 서울입니다…

地平線

얼음값이 三伏성수기를 맞아 20%가량 올랐다. 가로 58㎝×세로 1백10㎝×두께 29㎝인 1백35㎏짜리 덩어리가 3천3백50원이라고한다. 지금은 농촌에도 냉장고가 보급돼서 시중얼음값에 그다지 신경을안쓰지만 옛날엔 한여름의얼음이란 금만큼이나 귀했다. 그러나 5백년전에도 우리조상들은 氷庫를 만들어 아이스박스로 쓰고있었으니 놀랄만하다.

▼이조 초기의 氷庫를 보면 지금의 서울 玉水洞에 東氷庫, 西氷庫국민학교 가까이에 西氷庫를 두었고 東氷庫는 제사때에, 西氷庫는 御廚에 주로 쓰되 일부를 百官들이 나눠받기도 했다. 그옛날에도 中浪川(淸溪川)의 汚水를 피해 採氷을 豆毛浦와 楮子島사이에서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얼음두께가 4치가돼야 採氷했고 藏氷은 군인이 맡았다. 祭享에 쓰인 東氷庫는 燕山君때 遊獵擴張의 區域標內에 들어 西氷庫동쪽에 이전됨으로써 사실상 서빙고로 통합되고 말았는데 1만2백44丁을 藏氷했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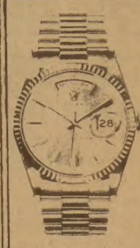
▼西氷庫의 얼음은 13만4천9백74丁을 藏氷했는데 1丁이 얼마만한 크기였는가 궁금하다. 各殿·宮에 供上된 얼음이 1만丁이었고 3월부터 9월까지 공급됐다. 大君、王子君、公主、翁主의 宮家에는 6백60丁을 5월~7월까지 석달만 배급했다. 王子의 乳母, 侍女등에게도 얼음이 돌아갔고 宗親、文武 二品以上, 三司長官, 六承旨등은 牌(일종의 배급표)를 주어 찾아가게 하되 牌氷은 6월(음력)한달만 頒氷했다.

▼各司에선 한두달만 頒氷되었는데 약9천丁으로 알려졌다. ▼各宮房 奎章閣의 頒氷은 5월부터 7월까지였고 그수는 1천8백丁、提學의 경우 90丁, 前任은 10丁씩받았다. 벼슬자리에 오른다는것이 결국은 얼음덩이 몇개를 받느냐로 나타나는 세상이었으니 아득한얘기다.

▼成俔의 慵齋叢話에서 採氷얘기를 보면 얼음위에다 칡 새끼를펴서미끄러져 넘어지는것을막고 강변엔 땔나무를 준비해서 凍死傷을 막았다고한다. 또 갈대를베어, 상하사방을 덮었다고한다. 어느해에는 관원들이 술에취해 졸기만하고 얼음저장을 下吏에게만 맡겼다가 다음해 얼음이 녹아 모두 파면당한 일도 있었다.

▼기온이 높아 採氷이안될땐 司寒祭를 지내기까지하면서 漢江變에 수백명이 모여 얼음캐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자.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에 둘러싸여 사는 오늘의 문명사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실감이 갈듯하다. 또 얼음덩이를 얻어갖고 우쭐하던 관원들의 모습은 우습광스럽지만 자손인 우리로서야 웃을수도 없지 않을까.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8
은 : 온스당 US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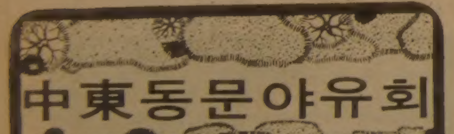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장석
☎ 247-9347


中東동문야유회

중동동문 여러분을 여름 야유회에 초대합니다.

일 시 : 7월25일(토)
장 소 : 모닝사이드 · 팍(스카브로)

회장단에서 음식및 드링크 · 상품을 전부 준비 하였사오니 전부 참석 바랍니다.

연락처 :
회 장 댁 : 742-5672
부회장댁 : 363-3687
총 무 : 439-3690

중동동창회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록 배

●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밍코트, 자켓, 모자, 스톨, 밍목도리등.
BIG SAVINGS NOW!

●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 신품 : $99이상 ●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核확산防止 중요성增大"

레이건聲明 6개항 政策指針발표

◇「北아일랜드 斷食」조사나선 國赤대표단

제네바에 본부를둔 국제적십자사대표단 3명이 北아일랜드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수감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기위해 현지로 가는길에 16일 런던히드로공항에 도착했다。이들은 英國정부의 허용에따라 조사에 나선것。【런던16日AP聯=聯合】

統制보다 安保에力點

美 核우산 제공 非核國 保有동기줄여

【워싱턴16日AP=聯合】레이건 미대통령은 16일 핵무기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지역적 세계적안정 그리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핵무기보유동기의 감소와 70년핵확산금지조약의 준수등을 골자로한 6개항의 핵확산방지정책지침을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성명을 통해 중동지역의 불질한 사태에 비추어 핵무기확산방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보및 외교정책의 기본목표가 되고있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①지역및 국제안정개선과 다른국가들의 안보우려를 통한 핵무기보유동기의 감소 ②1970년의 핵확산금지조약고수 지지 ③기존핵조약및 핵안전협정 위반을 국제질서와 미국과의 쌍무관계에 대한 중대결과로 간주 ④국제에너지기구(IAEA)의 강화및 국제핵안전장치개선 ⑤핵확산위험대처방안강구를 위한 타국과의 협력및 ⑥민감한 핵물질·장비·기술이전을 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행정부가 카터전행정부의 정책에서 탈피、핵확산의 위험이없는 핵보유국들의 증식로 개발을 억제하지않을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핵확산방지노력의 성공여부는 미국이 지역및 세계안정을 개선하고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케할수있는 동기들을 감소시킬 능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레이건행정부의 6개항 핵확산방지 지침이 민간사용을 위한 [illegible] 제보다 국제정치및 [illegible] 에 더욱 높으로써 카터전행정부의 핵정책에서 탈피했다고 지적하고 새정책[illegible]재처리및 판매와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제공함으로써 [illegible] 른 국가들의 핵무기생산을저지하려는것이라고 말했다。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새핵정책지침이 개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고말하고 각국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그같은 검토가 진행되고있다고 말했다。

유럽核제한 協商촉구

社會主義 지도자들、美·蘇에

【본16日UPI=聯合】사회주의인터내셔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제사회주의 지도자들은 16일 미국과 소련에 대해 유럽핵무기 제한협상을 지체없이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현상개시시한을 오는 11월까지로 설정하면서 유럽핵군축협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제핵미사일5백72기의 유럽배치시한인 83년까지 협정을체결하라고촉구했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장인 빌리·브란트전서독수상은 유럽핵군축협상의 즉각 개시촉구가 당장은 미·소양대국을 향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미·소양대국에 영향을미치는 모든 국가들을 향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機、팔基地 猛爆

레바논國境에兵力집결…곧 大攻勢

【텔아비브·베이루트16日UPI=聯合】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의한 지난 73년 중동전이래 최악의 유태인정착촌포격에 대한 보복으로 16일 적어도 레바논남부 5개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목표물들을 강타하고 2개사단 병력을 레바논국경지역에 집결시킨것으로 알려져 남부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공세가 임박한것으로 보인다。

레바논국영 베이루트방송은 팔레스타인의 와파통신과 12대의 이스라엘 팬텀기들이 이날새벽 레바논내 13개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중 최대규모인 아인엘헬웨 수용소를 포함、시돈·하부쉬 수모르 등 적어도 5개지역 팔레스타인게릴라기지와 수용소들을 약2시간30분동안 폭격했으며 폭격에 이어 이스라엘 정찰기들이 레바논남부 거의 전지역을 정찰하는가운데 이들 지역에대한 집중포격을가해 33명이 죽고 1백여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공습에서 레바논남부에 이르는 5개주요교량을 파괴시켜 이스라엘의 전면대공세가 임박했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으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자 야세르·아라파트도 이날 한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미 레바논과의 국경지역에、2개사단병력을 집결시키고 앞으로2주이내에 레바논남부에대한 육·해·공전면대공세를 개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날공격은 15일에있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유태인 정착촌포격에대한 보복으로 지난1주간동안 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 대한 4번째 공격이다。

美下院、국방授權法案가결

예산1천3백60억弗…史上최대

【워싱턴17日UPI=聯合】美下院은 16일 美역사상 최대규모인 총1천3백60억달러의 82회계연도 國防授權法案을 찬성3백54 반대63표로 가결시킴으로써 레이건행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방위력증강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下院본회의를 통과한 82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81회계연도보다 2백64억달러가 증액된것으로 이미 上院에서 승인을 받은바있다。

베트남 캄占領규탄

캄問題국제회의

【유엔본부17日AP=聯合】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유엔국제회의는 16일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을 규탄하는 反베트남 선언에 합의했다고 회의소식통들이 전했다。

經濟침체 극복摸索

20·21일、오타와西方경제頂上회담

【오타와16日AP=聯合】미국、프랑스및 일본등 서방7개선진공업국지도자들은 오는20、21일 이틀동안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서방경제정상회담에서 전후최악의 세계경제침체를 극복하기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회의소식통들이 16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이번회의에 참석하는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서독·이탈리아및 일본등 7개국지도자중 로널드·레이건미대통령、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 대통령、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및 지오바니·스파돌리니이탈리아수상등 4명이 새로운 얼굴이기때문에 이회의가 전반적으로 「낯익히기위한모임」의성격을 짙게띠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경제의 제반문제와 [illegible] 문제를 토의하는 [illegible] 한편 [illegible] 의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黨중앙위원 選出마쳐

波共黨대회、候補70명도 史上 첫秘密투표로

【바르샤바16日DPA=聯合】폴란드 공산당특별전당대회는 16일밤 동구권사상처음으로 비밀투표에의해 당중앙위원2백명과 후보위원70명을 선출했다。

관영TV방송은 이날밤 대의원 1천9백95명전원이 중앙위와 기타 당기구구성을위한 비밀투표에 참여、이날밤 자정경 투표를 완료했으며 투표결과는 17일하오에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공식발표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폴란드 당대회는 단일후보를 놓고 거수투표에의해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소련권투표관례와는 달리 2백75명의 후보를 놓고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이들 후보들이 당선되기위해서는 적어도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하는데 관리들은 과반수득표자가 없을경우 2차투표가 필요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 선출된 당중앙위원2백명은 17일저녁에 있을 당제1서기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지명하게된다。

카니아、強力도전 받을듯

【바르샤바17日DPA=聯合】스타니스와프·카니아 폴란드공산당제1서기는 17일 東歐역사상 최초로실시된 黨제1서기 직접선거에서 강한도전을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黨제1서기를 추천한 중앙위소식통은 7명의 다른후보들이 카니아에게 강력히도전할것이라고 말했다。

카니아의 15일 중앙위가 시작될때는 그의 위치가 안전한것으로 보였으나 그의 지도력과 前歷에 대한 끈질긴 공격은 그가 쉽게 이길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많은 중앙위대표들은 카니아행정부가 지침과 용기가부족하다고 공격했으며 이번주 바르샤바에 유포된 한 서한은 그를 지난 70년 발틱해의 노동자혁명어인사건과 연결시키고있다。

"波共黨대회 修正主義的"

蘇기관紙 비난

【모스크바16日DPA=聯合】소련은 16일 현재개최중인 폴란드 공산당특별전당대회에서 행해진 일부연설이 「수정주의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이번 폴란드 당대회개막이후 처음으로 이대회에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는 이날 바르샤바발 기사에서 이번 폴란드 당대회에서 연설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고한 기반위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에 연설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으며 연설의 대부분이 이념적으로 용납할수있는 것이었으나 일부 연설의 수정주의적성격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다。

◇지붕위의 住民들

지난13일 中共의 四川省을 강타한 홍수로 1만6천명의 주민들이 지붕위에 서있다。이번 홍수는 이재민을 냈다。【北京16日AP=聯合】

洪水로 3千명 死亡

中共、豪雨에 揚子江 범람

【北京17日AFP=聯合】지난수일간의 집중호우로 中共남부일대를 휩쓸고 있는 최악의 홍수사태로 최소한 3천명이 사망했다고 中共의 공식소식통들이 17일 전했다。

四川省 成都의 한관리는 AFP통신에 전화를 걸어 이번 홍수로 揚子江연변및 그 支流의 제방이 곳곳에서 터졌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자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揚子江유역 수개도시등에서 현재까지 이미 약3천명이 사망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번홍수로 모두 1백41개 도시및 촌락이 침수됐으며 이중80개지역은위험한상태에놓여있다고말했다。

暴動관련、3천逮捕

英內相、下院에報告

【런던16日UPI=聯合】윌리엄·화이트로 영국 내상은 16일 영국전역에서 지난 10여일간 벌어진 폭동으로 3천명이상의 시위자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화이트로 내상은 이날 경찰의 과잉단속을 항의하는폭동이 영국남부 브릭스턴지구에서 벌어지고있는가운데 폭동문제를다루기위해 소집된 하원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4만5천명의 죄수를 수용할수있는 영국내 교도소가 모두 만원이어서 이들 체포자일부를 서남부지방의 솔즈버리 육군형무소에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新婦감찾아 本土行

★홍콩、獨身者證明얻어

홍콩의 독신자들은 35홍콩달러(약5천원)를 내고 이른바 『독신자증명서』라고불리는 표한증명서를 당국에서 교부받아 중국본토로 신부감을 찾아 떠난다。

홍콩이민당국은 중공을 방문하기위해 결혼을 원하는독신자들에게 『결혼경력이없다는증명』을 교부하고있는데 또한 결혼을원하는 중국본토의 처녀들역시 결혼승낙에앞서 『총각증명서』제시를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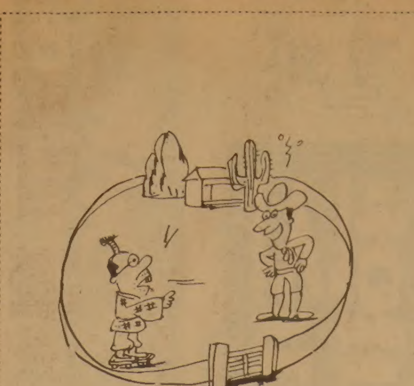
홍콩총각들이 본토의 처녀들을 원하는 까닭은 20세이상의 여자가 1백51만2천명인데 남자는 1백66만3천명으로 더 많은 인구구조에도 있으나 가장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

홍콩의 처녀들이 재산과 위를 결혼조건으로 내세우는데 비해 본토처녀들은 이런바 『34개의 다리』만을 요구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 『34개의 다리』라는것은 탁자 1개와 의자 4개의 다리 20개、침대하나의 다리 4개、옷장2개의 다리 8개등을 합한 32개의 다리에다가 신랑의 다리 2개를 합한것이다。【홍콩=聯合】

海外토픽

英語교육 어떻게… ③



日本의 失敗에서 배우자

모두에게 強要하는건 손해

「필요의 限界와 基準」명백히

한국인의 영어를 불가사의하게 불구로 만들어놓은 원인은 무엇인가。그것은 한마디로 일본식영어의 유산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해방이 되고 본격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됐을때 우리교단에 섰던 영어교사、영어교수등 영어교육관계자들은 거의 모두가 일본에서 영어공부를 한사람들이었다。당시로선 그들외엔 다른대안은 없었으므로 어쩔수 없는 숙명같은 꼴이 돼버린것이다。

영어에 가장 무능한 국민이 일본인이라는것은 이미 세계적인 정설이다。하필이면 그런 일본에서 영어교육제도를 수입하게 됐는가하고 후회해본들 소용없다。시작부터 이미 우리영어교육의 실패는 결정지워져버렸다。

일본慶應大의 東(히가시)교수는 새로 유학온 외국인들에게 『일본에서 간단한 영어라도 통하는 곳은 대학의 교수사회、1급호텔、고급술집등 세군데밖에 없다』고일러주곤 한다。본인으로서는 일본생활을 시작하는 외국인에게 오리엔테이션을겸해 들려주는 친절이다。그에 의하면 1급호텔과 고급술집에서 영어가 그나마 통하는 것은 전후 미군점령시대에 이들과 접촉해 본 여자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서비스직종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영어공부를 등한시해왔는가하면 천만의 이야기다。TV의 교육방송은 물론 民放까지 초저녁만 돼면 외국인들을 스튜디오에 불러놓고 갖은방법을동원해 실용영어를 가르친다。영어회화학관이 큰산업이 돼있고 회화용카세트、비디오 상품이 판을친다。아예 인적드문 교외에다 울타리를 처놓고 그안에서 자고먹으며 영어를 집중교습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있다。

울타리안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싫으나 좋으나 영어만을 쓰게돼있고 꾸며놓은 것도 미국의 한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다。좋다는 교습방법、믿을수 있다는 교재、일급의교사는 다동원해 소란을 펼고한다。영어교육이 큰실효를 거두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회화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는 눈에띄지않고 엉뚱하게도 『영어포기론』이 일각에서 고개를들고있다。왜 그럴까。영어포기론의 골자는 「아무리해봐야 안되는일 가지고 왜들 야단이냐」는 자포자기에서 출발한것이다。그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얻은것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벙어리상태 그대로라면 차라리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그노력과 돈을 다른데로 돌리는게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일본인적 계산의 결과라고 할수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웬만한 일본인치고 한동안 영어회화책을 사들고 중얼거려 보거나 회화학관을 한두번 기웃거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한때 해보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해봤지만 결과는 언제나 원점인것이다。

실제 영어회화공부를 죽어라고한 일본인을 상대로 대체 배워서 1년에 얼마나 써먹었느냐는 조사를 한적이 있다。대답은 1인당 평균 0.8회。1년가봐야 외국인과 직접부닥쳐 간단한 영어라도 해본것은 단1번이 채 안된다는 이야기다。

영어포기론의 근거는 바로 이런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영어를 그만두자는것은 아니다。꼭 해야할사람、안해도 좋은사람이 나눠지는 것인데 모두들 덩달아 뛰는것은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는 소리다。

일본인의 영어에 대한 이같은 체험은 한국인에게도 많은 교훈을준다。일본의 실패담에서 정말 귀중한 산교훈을 배울수 있는것이다。영어를 하필 영어후진국인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했던것이 불행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았던들 달리 뾰족한수가 없었겠느냐는 의문마저 드는게 사실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언어구조인 우랄알타이어계에 속하는 표음문자다。어순도 공교롭게도、영어와 정반대다。[illegible]

【金時福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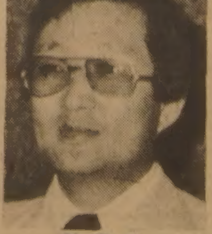
오늘의 小史 <18일>

▲美 남북전쟁 발발 (1861)
▲美·淸 아편협정 체결 (1885)
▲獨·蘇간에 스탈린그라드 攻防戰 개시 (1942)
▲쿠바, 大韓民國 정식승인 (1949)
▲重石弗부정처분 국회로 비화 (1952)
▲民主黨 창당대회 (1963)

Century 21.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9,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방갈로 독채 3 베드룸 룸개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 게
— 주매상 $37 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쇼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샵등 다수 있음
4. 동양게 식당 일요일 닫으며, 이윤이 좋고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적은 Down payment $15,000~20,000



황용현

경영상담
투자상담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8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It's your regular TV until the doorbell rings . . . then it shows you who's at the door.

Use it to watch any room or any area, inside or out.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어린애를 감시하고 돌볼 때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메아리

바가지 요금

박꽃은 흔히 아름다운 여인과 비겨졌다。즉 박꽃처럼 아름답다고 형용했던 것이다。꽃뿐만 아니라 영근 박의 속까지도 살결이 고운 여인의 형용으로 살결이 박속같이 희다고 일러왔다。

더우기 우리 판소리 가운데 춘향전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흥부전에서도 흥부가 바가지를 타는 대문인 박타령이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이렇듯 바가지는 우리전통적인 생활습속이나 한집안이 초가집 뜰에 멍석을 펴고 모기불을 지피며 도란도란 저녁을 먹을때 초가집 지붕위에서 소담하게 피어나는 박이 왜 부담요금과 결부가 되었는지를 알수가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구로 친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나물용으로도 맛이 있어서 시골 농가의 초가지붕 위에 덩굴로 올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illegible] 없어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illegible] 시요금 또는 바가지를 씌운다고 얘기를 해서 [illegible] 국내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에게라도 바가지도 오래 되었다。

[illegible] 지를 씌운다는말이 부담요금의 뜻으로 쓰이는 가치관 속에서는 아름답고 바람직스러운 것일지언정 바가지요금과같은 불쾌하고 언짢은것과 상관이 지어져서 팔시나 푸대접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 섭섭하기 따름이다。

요즘에 와서는 시골이라해도 이른바 새마을사업이되어서 박의 명줄이 마음놓고 올라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영글게할 초가지붕도 썩 드물어져버렸고 생활도구로서도 인공수지로만든 바가지가 나돌면서는 그나마 괄시를 받게되어서 도시에서는 박나물같은것은 좀 체로 맛을보기가 어려운 별미가 되었다。

올 여름따라 더위는 유별나다。모처럼 산과 바다를 찾게되는 피서객에게 행여나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바가지가 지녀온 우리 생활속에서의 소담했던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모처럼의 피서행에서 얻은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게 되기 때문이다。

바가지란 쓰는 쪽의 불쾌감도 말할나위가 없으나 씌우는 쪽도 소탐대실로 먼 안목으로 보면 결코 손해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바가지 없는 여름이 되었으면 한다。

李薰喆 자유형100m 한국新

海軍팀 繼泳4百m서도

첫날大會新 11개 수립도

전국男女수영

자유형 1백m에서 한국體大의 李薰喆과 계영4백m에서 海軍팀(姜錫仁 金晩基 姜昌範 金秀賢)이 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남녀 5백84명(남3백8、녀2백76)이 참가한 가운데 17일 서울운동장 수영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남녀 초·중·고·대학및 일반별대항 수영대회 첫날경기에서 李薰喆은 남대계영 4백m에 출전、1번 泳者로 자유형 1백m에서 55초97을 기록、자신이 지난해 5월 수립한 한국최고기록 56초57을 0·06초 앞당기고 1년만에 또다시 경신했다.

또한 姜錫仁 金晩基 姜昌範 金秀賢으로 이어진 海軍팀은 남일반계영 4백m에서 지난해8월 海軍팀이 세운 종전 최고기록 3분56초92를 깨뜨리고 1초85를 단축、11개월만에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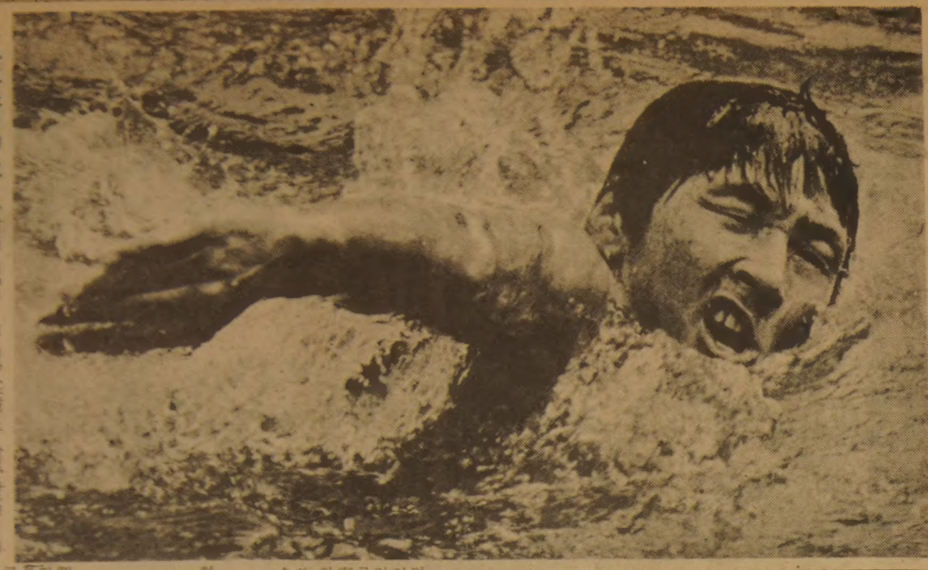
지난해의 해군팀은 姜錫仁대신 吳昌均이 출전했었다.

개인혼영의 한국최고기록보유자 趙眞娥(이화여고)는 이날 여고배영2백m에 출전、2분35초35로 한국기록 2분23초98에는 크게 미달했다.

첫날 경기에서는 한국신2개와 대회신기록 11개가 수립됐다.

◇첫날기록〈종목별1위〉

▲남일반계영4백m=해군 3분55초07(한국신·종전3분56초92) ▲여일반계영4백m=한국은행 4분42초90(대회신·종전4분43초10) ▲남대계영4백m=한체대 4분1초44 ▲여대계영4백m=효성여대 6분4초16 ▲남고계영4백m=경북 4분1초17(대회신·종전4분2초28) ▲동자유형2백m=김진명(육포)2분7초43(대회신·종전2분8초31) ▲동배영2백m=김효철(평리)2분31초90 ▲동접영2백m=방춘영(경기)2분16초F(대회신·종전2분21초55) ▲여고배영2백m=조진아(이화)2분59초49 ▲동계영4백m=이화 4분27초05(대회신·종전4분27초98) ▲동자유형2백m=김선희(이화)2분20초64(대회신·종전2분22초83) ▲동접영2백m=천명의(이화)2분29초38(대회신·종전2분29초70) ▲남중접영2백m=허인식(삼천포)2분27초73 ▲동계영4백m=신성 4분20초74(대회신·종전4분20초78) ▲동자유형2백m=박상욱(용산)2분9초37(대회신·종전2분14초34) ▲여중배영2백m=최윤희(서울사대부)2분29초16(대회신·종전2분34초86) ▲동계영4백m=상명 4분32초54 ▲동자유형2백m=최윤경(강남)2분24초92 ▲동접영2백m=2분40초24



◇한국新 力泳 남자계영4백m에 1번 영자(泳者)로 출전、자유형 1백m에서 55초97의 한국신기록을 세운 李薰喆의 역영모습。

한국、끈기로逆轉…첫 覇權

李萬洙2루타로勝機 美제압 11—9

韓·美대학야구

끈질긴 추격의 개가였다. 한국대학 야구선발팀은 16일 밤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5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 5차전에서 6회말 3번 朴鍾勳의 동점 희생타、4번 李萬洙의 역전2루타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잇단 3의 적실로 결승점을 얻어 힘을 앞세운 美國대학야구선발팀에 11—9로 역전승、대회 첫 패권을 차지했다.

강타력의 美國은 안타수에서 14—8로 우세를 보였으나 수비허점으로 패배했다.

4승1패로 한국의 우승이 확정되었으나 양팀은 예정대로 17·18일 6·7차전을 갖는다.

운명의 6회말 한국은 美國의 수비실책 3개로 뜻밖에 손쉽게 역전승의 계기를 잡았다. 선두 9번 吳大錫·1번 金一權이 차례로 볼넷을 고르고 1死후 3번 朴鍾勳이 7—7의 동점을 만드는 라이트 희생플라이를 날렸으며 이어 등장한 4번 李萬洙가 우중간을 뚫는 통렬한 적시2루타를 터뜨려 전세를 8—7로 뒤집었다.

당황한 美國내야진도 일시에 흐트러져 유격수·3루수·투수의 잇단 3실책으로 한국은 2점을 추가、10—7로 역전리드를 잡았다.

3점차로 밀려난 美國은 7회초 선두4번 골드손이 구원역투하던 한국의 金城漢의 초구를 좌중월 담장밖으로 날려 2점차로 따라 붙었으며 8회초 또다시 선두 8번 맥도웰이 중앙스크린을 넘는 장쾌한 솔로 호머로 10—9、1점차로 육박했다.

8회말 한국은 李鍾雄의 좌전적시타로 1점을 추가、美國의 종반 추격을 뿌리쳤다.

1회의 대공방에서 양팀은 3안타씩을 집중、3—3의 타이를 이루었다.

◇제5차전적

미국 (1승4패)	300	220	110	9
한국 (4승1패)	300	034	01×	11

▲홈런=골드손(7회초)、맥도웰(8회초·이상미국)

국내卓球界 충격

대표급선수 신진들에 連敗

麗水전국종별대회

세계정상에 도전하고있는 한국여자탁구의 대표급선수들이 무명신진들에게 연패당해 국내탁구계에 큰충격을 던져주고있다. 16일 麗水 전국종별선수권대회의 개인단식경기서 국내랭킹1위의 李壽子(제일모직)、은퇴경기를 갖는 랭킹2위의 朴紅子(신탁은행)、3위 黃男淑(동아건설)、4위 安海淑(동아건설)이 모두 신진들에게 패배、초반에 탈락했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단식 3위인 李壽子는 2회전에서 지난해 부산 啓星女商을 졸업한 실업1년생 金明心(19·부산코카콜라)의 매서운 포핸드공격에 18—21、25—27로 패배했다.

全美오픈에서 복식을 제패한 국가대표 수비선수 安海淑은 이질라버를 사용하는 李英美(제일모직)에게 2—1로 역전패.

3회전서는 黃男淑이 金明姬(제일모직)에게 2—1로、朴紅子가 金順粉에게 2—0으로、前국가대표 辛庚淑(동아건설)도 금년 서울女商을 졸업하는 전진속공의 尹景美(서울신탁)에게 2—0으로 졌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대거 탈락은 국제대회이후 국내대회를 대비한 충분한 휴식과 연습을 갖지못한 탓으로 지적된다. 특히 東亞建設의 경우 1개월가까운 全美오픈원정후 거의 아무준비없이 이번대회에 참석、선수들이 피로를 감당치 못했다.

尹景美·金順粉쟁패

【麗水=聯】제27회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 4일째경기가 17일 이곳 여수고체육관에서 열려 여일반개인단식에서 신진 尹景美(서울신탁은)와 金順粉(제일모직)이 결승에 진출、패권을 겨루게되었다.

베테랑 辛庚淑(동아건설)을 제치고올라온 실업초년생 尹景美는 이날 준결승에서 金賢玉(부산 코카콜라)을 21—9、21—9로 물리쳤다. 랭킹 2위의 朴紅子를 물리쳐 파란을 일으켰던 金順粉은 이날 준결승서 金吉福(한일은)에게 21—19、21—14로 완승、결승에 올랐다.

世界 주니어레슬링 金春浩 2회전進出

【밴쿠버16日AP=聯】한국의 金春浩는 15일 밴쿠버에서 열린 81년도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첫날경기 48㎏급경기에서 캐나다의 데이브·룰루체이를 판정(13—0)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現代、韓一合纖완파

男女실업배구 李恩敬·尹玉南활약

【釜山=聯】現代는 17일 구덕체육관에서 속개된 제2차 전국 남녀실업배구연맹전 2일째 여자B조 예선리그에서 국가대표 李恩敬 장신 尹玉南의 대활약으로 선수부족에 허덕인 韓一合纖을 1시간10분만에 3—0으로 완파、1승을 올렸다.

◇제2일전적

▲여자B조

현대 3 (15—10 15—3 15—9) 0 한일합섬

전국男女 고교농구

景福高와 光州高가 각각 明知高와 全北師大附高를 물리치고 제13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남녀 고교 농구대회 남고부에서 4강에 합류、결승진출다툼을 벌이게 됐다.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고부준준결승에서 景福은 金龍學·李鎬 [illegible] 宋龍泰의 중거리슛으로 맞선 明知高를 시종리드끝에 58—43으로 꺾었다.

光州高는 姜正秀(18점)·閔承政(15점)·金龍鶴·鄭昇基(이상 14점씩)의 고른득점과 빠른 패스에 의한 골밑슛으로 全北師大附高를 71—50으로 대파、종별 선수권에서의 1골차분패를 설욕했다.

한편 여고부에서는 成德女商이 全北體高에 52—41로 낙승、역시 4강에 올랐다.

춘계련맹전 준우승팀 成德은 리바운드우세와 단신가드 徐仁淑의 재치있는 어시스트와 인터셉트、崔美愛(14점)·韓又珠를 이용한 포스트플레이가 좋았다.

◇제6일전적

▲남고준준결승

경복고 58 (26—22 32—21) 43 명지고

광주고 71 (40—28 31—22) 50 전북사대부고

▲동여고부

성덕여상 52 (25—23 27—18) 41 전북체고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富平中 우승

漢榮中 꺾고

전국씨름선수권

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가 17일 장충공원에서 개막、첫날 중등부 단체전결승에서 富平中이 漢榮中을 4—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富平中은 1회전서 文泰中을 4—3으로、2회전서 八峰中을 6—1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었다.

3일간 열리는 이번대회 체전에는 중등부8、고등부12、대학부6、일반부1팀(현대중공업)이 출전했으며 장사부8強전은 최종일진행된다.

◇분수대의 수포처럼 모래를 흩뿌리며 힘을겨루는 晋州高의 김삼식과 全州農林高의 尹기태. 흰 샅바의 金이 2—0으로 이겼다.

한국 決勝戰 진출

스웨덴에 또콜드게임勝 21—0

世界청소년野球

【뉴어크(美오하이오州)=李鍾南특파원】한국청소년야구대표팀은 17일 새벽(한국시간) 이곳에서 벌어진 세계청소년야구대회 6일째 예선A조 최종경기서 스웨덴에 21—0으로 7회 콜드·게임승、4연승을 올려 A조 1위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19일 새벽 3시와 9시 B조수위인 美國과 3전2선승의 결승시리즈를 갖는다. 3차전은 20일새벽3시로 예정되어있다.

한국의 趙啓顯과 李晩奉은 이날 스웨덴을 무안타무실점으로 완봉했으며 특히 4회에 등판한 李晩奉은 7타자연속 삼진의 珍기록을 세웠다.

4번 金健友는 홈런 1개를 포함、6타수 3안타3타점 3득점의 수훈을 세웠다. 金은 예선 4게임에서 18타수9안타(5할)의 타격1위를 마크하고 있다. 한국은 135타수 44안타 팀타율 0.326、4게임 32이닝에서 1실점、팀방어율 0.28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제6일전적

▲A조

한국	4	4	6	2	1	3	1	21
스웨덴	0	0	0	0	0	0	0	0

(7회콜드·게임)

▲홈런=金健友(7회초·한국)

베네수엘라 6—0 캐나다

(3승1패) (2승2패)

▲동순위=①한국 4승 ②베네수엘라 3승1패 ③캐나다 2승2패 ④네덜란드 1승3패 ⑤스웨덴 4패

金宗河씨選任 핸드볼協會長

대한핸드볼협회는 17일하오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공석중인 회장에 金宗河씨(高麗合纖사장)를 선출했다. (사진)

◇趙重勳대한항공(KAL) 사장이16일 캘리포니아州 호돈에있는 美國노드롭항공기 제작회사를 방문、토머·F·재슨부사장의 안내로 F5전투기의 부품을 시찰하고있다. KAL은 노드롭社의 부품을 도입、이를조립하게된다.【호돈(캘리포니아州) 16日AP=聯】

美F5機附品 對韓出庫시작

大韓航空에、國內生産 위해

대한항공 趙重勳사장은 17일상오(한국시간) 미국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노드롭항공기제작회사에서 거행된 F5기 부품출고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9년부터 F5기의 국내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그간 상당수의 기술인력을 노드롭사에 위탁교육해왔으며 각종시설과 장비를 갖추어놓았다.

이날 한미관계 인사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趙사장은 『겸허한 자세로 선진기술을 계속배워 한국방위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流星의 賦 <13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⑳

윤이형의 일이다。이이가 조강(朝講) 때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신이 생각하는 바를 진계(陳啓)하고자 하옵는데 경연에서 글을 강설한 후에 일을 아뢰면 전좌(殿座)하시는 시간이 늦게 되옵니다。따라서 한가한 시간에 입대(入對)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임금이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자 사간 권극지(權克智)와 장령 황섬(黃暹)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이가 전달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경연에서 아뢰도될 것이어늘 무시로 입대한다 함은 옳지 못합니다。반드시 후폐(後弊)가 있을 것이옵니다』

이 말이 임금을 불쾌하게 했다。

『너희들은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막으려고 하는구나。너희들의 심술을 알만하다。오늘날 이런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노기(怒氣)를 그냥 나타냈다。

그리고 후일 이이에게 이르길

『내가 우연히 경이 연전에 올린 상소를 보고 있는데 또 경의 상소가 올라왔기에 비교해 보았소。하나같이 자곡하고 용렬한 임금을 위한 경의 의로운 충정을 행간(行間)에서 읽을 수가 있었소。실로 가상한 일이오。나라 일은 마땅히 어진 대신에게 맡길 것이오。…공안(貢案)에 관한 일은 조정에 의논한즉 의견이 한결같지 않으니 좀더 두고 볼 일이고、군적(軍籍)에 관한 일은 이미 본조(本曹)에서 명령을 받았사오니 시선 여하는 경이 알아서 할 일이오。주현(州縣)을 주리는 일은 후일에 폐가 있을까 보아 감히 결정하지 못했던 것인데 경이 청하고 권하는 일이니 마땅히 시험해 보려하오。감사(監司)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창설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 왔으나 경의 제책대로 양남(兩南)에서 시험해 보고자 하오。서얼(庶孼)들에게 허통(許通)하는 일은 사변(事變) 때의 경의 의견에 좇아 곧 시행할 것을 명하였지만 말하는 자들의 논란(論難)이 심하니 다시 비변사에 물어 시행하려 하오』

허통(許通)이란 것은 서얼들에게도 벼슬을 시킬뿐 아니라 청직(淸職)에도 등용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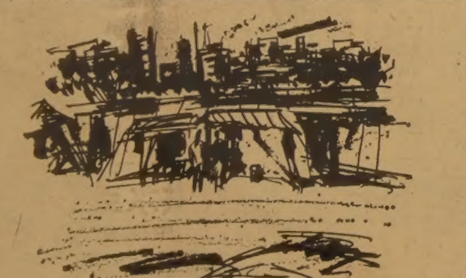
여름이 되었다。호인(胡人)들이 종성(鍾城)을 포위했다는 급보가 날아왔다。도성오부(都城五部)의 각 방(各坊)의 향도(香徒)로 하여금 활을 쏠수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수(射手)들은 모을수가 있었지만 전마(戰馬)를 변통할 수가 없었다。병조판서 이이는 을묘년에 병사들이 말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회상하고 다시 그런 일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안출했다。

즉 뽑힌 사수(射手)들 가운데 늙고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헌납하게 하여 징발(徵發)을 면해주려는 것이다。그랬더니 말을 헌납하는 자가 많이 모여들었다。그래서 일이 급하기도 하여 한편 말을 나누어주어 사수들을 전지에 보내며 임금께 아뢰는 수속을 취했다。그렇게 되니 나가는 자는 말을 얻어 기뻐하고 머무르는 자는 전쟁에 가지 면했다고 기뻐했다。그러나 동인들은 이이가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다고 지목했다。후일 동인들은 이 일을 들어 이이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모눈종이 위의 生 <151>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⑩

창경원의 일이 있은뒤 노영지와 나는 급속히 친해졌다。노영지는 아무 때고 불쑥 병원에 나타나서「언니 바빠요?」하고 밝은 표정을 보였고、내가 바쁜 시각에는 대기실의 의자에 몇 십분이고 앉아 기다리곤 했다。내가 한가한 때면 근처의 다방이나 냉면집、또는 아주 값으로 가께우동을 말아서 파는 포장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내기도 했다。

그녀와 나는 한민일이라는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창경원 이후로는 그에 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았다。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와 나는 각각 그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서로 확인시키기라도 하려는 것처럼。만나면 우리들은 그저 주변 사람들 이야기、신간(新刊)을 읽은 이야기(노영지는 그즈음의 신간인<갈수 없는 나라>상하 두 권을 사서 읽고 내게 빌려주기도 했다) 연극 이야기 따위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뜻밖에도 노영지는 독서량이 많았고、비판력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때때로 나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는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와 나는 마치 금기(禁忌)처럼 그의 책에 관해서는 서로 입을 열지 않았다。그에게도 신작이 있고、거의 매일 일간지의 서적 광고 난에 그것이 오르내렸지만 그녀와 나는 그것마저 모른체했다。일테면 우리는 그에 관한한、서로가 빈 손임을 수시로 만나서 보여주었던 셈인데、그럴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여간 켕기는 느낌이 아니었다。왜냐하면 창경원 이후 나는 바로 정릉의 방갈로를 답사해두었고、그 뒤로도 벌써 몇 차례나 그곳에 찾아갔었던것이다。요컨대 그에 관한 한 나는 이제 빈 손이 아니었으며、그러면서도 노영지에게 그의 환상으로부터 완전히 깨어 버린척 굴기가 여간 켕기지 않았던것이다。

그것은 노영지 쪽도 마찬가지인지 알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겉으로는 그와 결별한 척 굴면서 몰래 그와 밀회하고있는지 어떤지、그것을 내가 확인해본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우리들은 창경원의 밤 이후 급속히 친해졌으면서도 한 자락은 서로의 움직임에 대해 비밀리에 감시하는 감시역과 비슷했다。일테면 그것은 금기(禁忌)에 대한 두 신도(信徒)의 엇갈린 감시 비슷했는데、안 보이는데서는 금기를 깨뜨리고 돌아서서는 시치미를 떼는、믿음이 깊지 못한 교도말이다。적어도 내 쪽에서는 그랬다。

그렇게 몇달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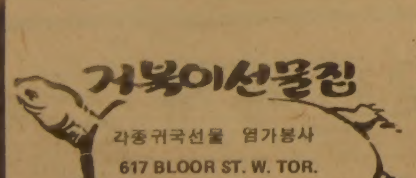
가을이 깊어져서 거리의 가로수들마저도 잎을 다 떨구고 포도에 나뒹구는 낙엽위로 찬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계절이었다。그런 어느 날 점심 시각에 맞춰 병원으로 나를 찾아온 노영지가「언니、나 가께우동 사줄래요?」라고、나를 포장집으로 데려가서는「한민일씨、또 정릉에 들어간 모양이던데…」하고、내 귀가 번쩍 뜨일만한 말을 했다。

『그래?』

짐짓 심드렁하게 대꾸하기는 했지만 이미 내 가슴은 높이 고동치고 있었다。이번만은 실패하지 않으리라。이번만은…노영지에게 얻어 들은것과 그의 글 등을 종합해서 얻은 지식이지만 그가 글을 쓰기 위해 정릉의 방갈로에 들어가곤 하는 것은 그럴만한 연유가 있었다。신혼초의 어려웠던 시절을 그는 그곳에서 보낸 것이다。뿐만 아니라 그가 써낸 중요한 작품 거의가 그때 이루어졌으며、그즈음의 생활을 회상하는 수상(隨想)도 한편 있었다。<겨울 새>라는 제목의 이 아름다운 수상은 눈덮인 산에서 먹을것을 찾아 그들의 방갈로 앞마당에 내려온 한쌍의 새、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5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 7PM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 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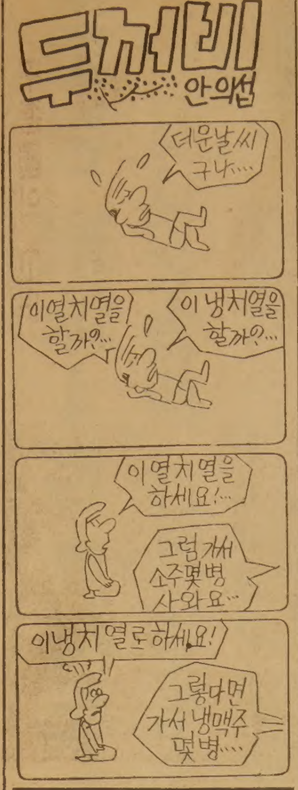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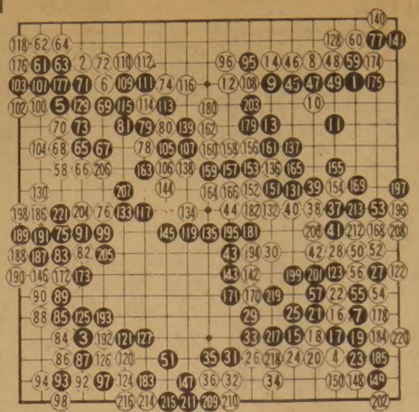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뱅킷 가드에 닦아서 원하는대로 피엌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s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 2003





◇36기 本因坊戰도전 제6局 勝戰總譜 (1~221)

黑 名人 趙治勳9단 (4승2패)
白 本因坊 武宮正樹9단 (2승4패)
<제한시간 각 9시간·黑5호반공제> (167~136의곳)

趙治勳, 日바둑 待望의 2冠王

日史上 4번째 名人이어 本因坊…「最高의 날」

제6局 2百21手만에 석집半차로 이겨

【熱海(아따미)=宋孝彬특파원】 趙治勳名人(25)이 本因坊位도 탈취, 일본기원사상 名人과 本因坊位를 한꺼번에 보유한 4번째 기사가 됐다. 趙名人은 15·16양일간 아따미(熱海)의 이즈미노 유가하라(泉之湯河原)온천호텔에서 벌어진 제36기 本因坊戰(每日新聞주최)도전7번기 제6국에서 다께미야(武宮正樹·30)本因坊을 2백21수만에 3집반차로 누르고 토틀스코어 4승2패로 本因坊타이틀을 쟁취했다. ★관련기사10면

이번 제6국은 執黑의 趙9단이 黑1소목, 黑3으로는 대각 화점에 두는등 필승의 신념으로 다께미야9단의 宇宙流에 맞섰다. 바둑은 초반부터 趙9단의 작전대로 전개돼 黑77로 15일 첫날대국이 끝날무렵 국세는 이미 趙9단쪽으로 기울었다. 다께미야 9단은 대세를 만회하기위해 대국이틀째인 16일 白78봉수로 黑馬를 공격하면서 국면의 주도권쟁탈에 나섰으나 趙9단의 침착한 응수로 끝내 대세를 만회하지 못한채 本因坊位를 趙9단에게 물려주었다. 이날 하오9시2분, 2백21수만에 계가 결과 趙9단이 반면 9집을 남겼으나 덤 5집반을 공제, 3집반을 이겼다. 소비시간은 제한시간 각9시간 가운데 趙9단은 8시간53분, 다께미야 9단은 8시간59분을 사용했다. 趙9단은 本因坊位를 쟁취함으로써 상금1천2백만엔, 대국료 3백30만엔등 1천5백30만엔(韓貨 4천5백90만원)을 받게됐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人 언제나 좋은 바둑에最善"

趙治勳 일문일답

趙治勳은 또다시 일본바둑계의 최정상에 섰음을 확인했다. 6살 코흘리개가 현해탄을건너온지 18년만인 지난해 일본의 3대타이틀가운데 하나인 名人위를 쟁취한데이어 본인방(本因坊)을 또다시 따내어 2관왕을 획득,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2관왕이 된 소감은?
▲지금 본인방이 됐다는 실감이 나지않는다. 너무 피곤하여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기쁨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싶은가.
▲음양으로 성원해준 고국의 바둑팬 여러분과 부모에게 전하고싶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사람으로 고국의 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위해서라도 열심히 좋은 바둑을 두겠다. 앞으로 棋聖戰에 도전하겠다. 그러나 타이틀을 따기위한 바둑이 아니라 좋은 바둑을 둔 결과 타이틀을 따는 것이다. 열심히 좋은 바둑을 두겠다.
―본인방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국은?
▲처음 3연승을 했을때 한판 한판 열심히 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연승을 한뒤에는 욕심이 생겨 실책을 거듭했다. 4국 5국의 바둑은 그런 결과이며 6국은 처음 1·2·3국때와 마찬가지로 겸허한 자세로 한점 한점 온정성을 쏟아부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바둑에 졌었다면 다음주에 제7국을 둘 계획이었다는외에 아무것도 없다.
【熱海(아따미)=宋孝彬특파원】

◇"내아들 만세" 축하전화를 받고있는 趙治勳本因坊의 아버지 趙南錫씨와 친척들. 어머니 金玉順씨(오른쪽서 3번째)는 『꿈자리가 좋아 治勳이가 꼭 이길줄알았다』며 기뻐했다.

일본바둑계에 趙治勳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 趙9단은 16일 다께미야(武宮正樹)9단으로부터 4승2패의 전적으로 본인방位를 탈취한후 『나는 자랑스런 한국사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바둑을 두겠다』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보여줬다.

2관왕이 된 趙본인방은 『이기쁨을 고국에있는 바둑팬여러분과 부모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를 낳아준 한국과 나를 키워준 일본에게 모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3연패를하다 2연승을 올려 한때 승기를 잡은듯했던 다께미야9단은 이날 본인방을 내놓은뒤 『趙治勳의 바둑은 끈질기며 원숙한 경지에 들어섰다. 이번 대국은 내가 완패했다』고 패배의 소감을 말했다.

회색 싱글에 빨간 넥타이 차림의 趙9단은 1시간50분동안 다께미야 9단과 복기를 끝낸뒤 피곤한듯 눈을 부비며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 피곤으로 가득찼을 뿐이다』고 사투의 18시간을 회상했다.

生命을건 바둑이다 每日신문 大書特筆

【東京17日=聯】혼인보(本因坊)타이틀전 주최회사인 일본마이니찌(每日)신문은 趙治勳혼인보의 새로운 탄생을 사회면 톱기사로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 『생명을건바둑』이드디어日바둑계의 정점에 올라섰다고 찬양했다. 이신문은 특히 6살의 어린나이에 일본에건너와 각고의 노력으로 정진해 온 趙혼인보의 프로필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오늘의 영광이야말로 19년간에걸친 일본객지생활에서 얻어진 고독한 집념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서울집 웃음꽃

趙名人이 本因坊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하오9시 조금지나 趙名人의 부모와 형 思衍씨(28)부부가 사는 서울麻浦區葛峴洞 집은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趙名人의 누나 喜衍씨(33)부부와 이웃주민들이 달려와 온통 웃음꽃을 피웠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 누워있던 趙名人의아버지 趙南錫씨(62)는 자리에서 일어나 『治勳이가 本因坊타이틀까지 얻어냈을줄은 정말몰랐다. 이제 治勳이가 일본제일 실력자라는걸 아무도 부인못할 것이다』며 기뻐했다.

自家用 秘密영업 짭짤한 재미

大都市서 企業규모까지 발전

◇駐車場·세차장등에 숨어서… 시내 곳곳의 주차장을 꽉 메운 자가용들. 무허가 자가용임대업자들은 임대용 자가용을주차장이나 세차장등지에 숨겨두었다가 빌려주기도한다. 【사진은 기사내의 특정사실과관련없음】

福德房등위장 盛業 電話로홍정 단골顧客은 中小업체·바캉스族

서울에만1百여곳…50여臺 갖춘곳도

"2회적발땐 廢車처분"도 아랑곳없어

올해미수준이던 자가용의 불법영업행위가 기업화단계까지 와있다. 3~4년전까지만해도 호텔이나 요정주변에서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던 자가용의 변칙 영업행위가 최근에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 기업규모로 발전, 간판에 광고까지 내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들 무허가 자가용임대업소들은 적게는2~3대, 많으면 10여대의 중고승용차를모아 자가용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체에 수시로 빌려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부인이나 가족단위로 피서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여까지 하고있는 실정. 특히 이들은 렌트카회사처럼 임대조건이 까다롭지않고 전화만걸면 언제든지 손쉽게 빌어쓸수있어 수요가 급증하고있다.

자가용 임대업소는 서울시내만도 보유댓수가 택시회사 규모에 가까운 업소50여곳을 포함, 모두 1백20여곳이나 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10여대의 자가용을모집해 임대해주고있는곳은 서울麻浦區孔德洞, 中區新堂洞, 江南區方背洞, 龍山區厚岩洞, 江南區良才洞등지로 세차장이나 주차장을끼고 비밀리에 전화를이용, 차를 빌려주고있다.

龍山區厚岩洞에 있는 한자가용임대업소의 경우 포니등 7대의 중고자가용을 모집해 차를 빌려주고 있는데 운전사를 포함, 하루2만5천원만 내면 차를 빌수 있다. 단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차주들이 차를 맡길 경우는 입회비 2만원과 월주당 광고비 1만2천원에 다 일거리를 맡았을 경우는 사무실 운영비로 수입금의 1할5푼을 낸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XX복덕방"등 그럴듯한 상호를 내걸고 있는 이들업소들은 차를 빌리거나 맡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분을 조심스럽게 파악한뒤에 접근한다.

광고를보고 전화를 걸면 여자직원이 신분을 파악한뒤 남자직원이 다방에서 만나게 약을 하고 차도 약속된 장소에서 인도받거나 약속장소까지 직접 몰아다준다.

이들업소들은 휴가철에 접어들자 자가용 모집광고까지 내고있는데 서울江南區良才洞의 한업소는 『최근에는 자가용이 없는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바캉스를가기위해 차를 빌리는 경우가많아 자가 단위로 빌리는 판이라』며 7일 연휴에는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업소의 종업원은 일부에 식장과도 계약이 돼 신혼부부들을 태워주기도 한다며 『중고자가용을 사서 맡겨놓아도 장사가된다』며 차주에게 월평 35만원은 보장해줄수있다고했다.

서울江南區淸潭洞에 있는 한업소의 단골고객은 부동산투기를위해 지방에 자주 나다니는 복부인들. 복부인들은 흔히 자신을 과시하기위한 방편으로 자가용을 빌리는데 팁만 조금주면 진짜 차주처럼 모셔주는등 연기에도 능란하다는것.

자가용 영업행위에는 문제가 많다. 임대가 손쉬워 자칫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고 대부분 보험에 들어있지않아 직접 피해자가 보고라도 당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하자 당국은 처벌규정을 강화, 1회 위반시 6개월이내의 사용금지, 2회적발시 폐차처분까지로 규정했지만 여전하다는것이다. 【朴珍켸기자】

찌는 무더위 溺死 잇달아

下級生구하고 숨진 어린이도

하루 곳곳서 10명이나 死亡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자 전국에서 익사사고가 급격히 늘어 16일 하룻동안에만 어린이와 청소년등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날 낮12시10분께 강원原城郡地正面良岷里 섬강에서 수영하던 金星洙군(20·柳韓공업전문대1년)이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하오2시30분께는 이곳에서 가까운 原城郡興業里 梅芝川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마을 申明善씨(38)의 4녀 은희양(7)이 익사했다.

▲하오1시45분께 부산시 西區西大新洞3가 구덕수원지에서 광성공고1년 백성범군(16)이 물에빠져 숨졌다.

▲하오3시께 서울城東區紫陽洞130앞 한강에서 멱을감던 신양국교6년 柳在元군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 柳군은 함께 물놀이를 따라나섰던 신양국교1년 조봉남군(7)이 물에빠져 허우적거리자 『내가 구한다』며 다른 3명의 어린이를 제지하고 혼자 물속에 뛰어들어 조군을 기슭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급류에 휘말려 강안쪽으로 떠내려가 숨졌다.

▲밤11시께 全州市八福洞2가344의9 신한원씨집에 세들어사는 金숙현여인(37)의 아들 李강민군(5)이 집앞 깊이 1m의 웅덩이에빠져 숨졌다. 이웅덩이는 全州전신전화국에서 케이블공사를 하기위해 파놓은뒤 물이 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것.

▲밤10시께 全州市孝子洞2가 서산부락앞 삼천천에서 이마을 高미곤씨(27)가 바지와 T셔츠등 옷가지를 냇가에 벗어놓은채 실종돼 경찰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

돈주고 試驗紙빼내

內申성적 잘받으려던 高3生이

1萬원받은 고용원解職

【昌原=聯】고등학교3학년 학생이 내신성적을 잘받기위해 학기말시험지를 자기학교 고용원에게 돈을주고 사전에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昌原市外洞소재 馬山L고등학교3년 金모군(18)은 지난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수학·물리등 8과목의 기말시험문제지를 프린트한 이학교 고용원 金福泰씨(35)에게 담배값 명목으로 1만원을 주고 시험치르기 이틀전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특수初中高 설립

文敎部계획 자질 뛰어난學生 語學교육

일부 國·私立대학에 併設

문교부는 17일 어학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기위한 방안의하나로 일부 국·사립대학에어학교육을 위한 특수 초·중·고교를 병설 운영할것을 검토중이다.

문교부는 최근 영어교육개선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있는것과 관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효율적인 외국어교사확보및 어학분야의 영재교육실시라는 측면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교부는 특수 초·중·고교를 어학교육실시능력을 갖추고있는 한국외국어대등에 시범적으로 병설운영토록 유도한후 성과가 좋으면 이를 전국공립대학등에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해나갈계획이다.

문교부는 또 특수초·중·고교설립및 생활영어교육강화에 따른 관련기자재의 면세도입등도 관계당국과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詩壇

어진 영혼의 노래

朴氣雄

어둠이 물러서는 새벽에
파랑새 한 마리
님의 곁을 떠나며 울어예는 것은
이땅의 어진 영혼들이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님의 생명이 이제 다하려는 것은
우리들의 여윈 가슴에 고인
서너개의 핏줄기가 흐려서도 아니며,
님의 따스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슬퍼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恩人이 되면
당신은 이미 이땅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돌아가던 날
어진 영혼들
사원 재 속에서 다시 굶주려 돌아와,
꿈 없이 하룻밤 지내며
이 마른 떡 하나를.

물러서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이승을 떠난 神의 이름으로
어진 영혼의 노래를 부릅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 래 픽 디자인부: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金 관 현

한인회정상화를 위하여 교민에게 드리는 말씀

토론토한인회 정상화를 위하여 한인회 이사회로부터 정상화 업무에 전권을 위임받은 본 위원회는 지난 7월17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방안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공지하오니 교민여러 분의 이해와 협조로서 배전의 성원을 빌어마지 않읍니다.

1) 회장단 전원및 이사장의 사표는 완전 수리된 것으로 확인하고 사표건에 대하여는 재론을 펴지 않는다.

2)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한인회 과도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과도운영위원회는 대책위원 5명, 이사 5명등 10명으로 구성한다.

3) 한인회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상회, 박인순, 장순채, 이영현, 강신봉씨가 피선됐고 이사회를 대표하여 함병섭, 문가자, 장영채, 장인철, 이영목씨가 선임 되었음.

4) 과도운영위원회는 퇴진한 회장단으로부터 조속히 업무인계를 받도록 주선해야한다.

5) 이사회는 한인회회칙에 의거,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절차를 속히 조치하기를 권유한다.

1981년 7월 17일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이렇게 조깅을 하자고한건 좋은 생각이었어" "기분이 썩 좋아지거든" "조깅 이상가는게 없다구" "그런데 조깅 덕분에 아주건강한 상태로쓸어지는사람이 많아진다는군"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農民 44%가 농약중독 경험
42.5%는 防毒마스크 着用안해

【馬山=聯】 농민들 가운데 44%가 농약에 중독된 경험이 있으며 이들중 42.5%는 농약중독을 예방해주는 방독마스크등을 전혀 사용치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서울大 보건대학원 李澤求교수가 馬山시내 고려병원에서 열린 제6회 한국농촌의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농약안전사고 및 중독경험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밝혀졌다.

李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경기도·平澤郡平澤邑蛤井里등 9개지역 농민 4백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각종농약에 중독돼 현기증·구토·시작장애·호흡곤란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대답한 농민은 2백11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으며 이중 1회 경험자가 46·3%(97명)로 가장많고 2회 28·4%(60명) 3회 11·2%(23명) 4회 3·7%(8명) 5회 3·3%(7명) 6회이상이 7·4%(16명)였다.

洛東江보존회 주최 變形魚·사진展示會

洛東江보존회(회장 오형근)는 18일부터 발족 3주년 기념행사로 洛東江변형어(기형어)및 사진전시회를 연다.

洛東江의 아름다운 풍물과 오염현장의 실상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洛東江보존의 의지를 심어주기위해 마련된 이 전시회는 한국일보 사진부와 洛東江보존회원 河永守씨(전한국일보 金山駐在기자로 洛東江관계기사 전담취재)등이 낸 작품으로 부산 美공보원 화랑에서 23일까지 계속된다.

"대낮撒布작업 피해야"
日本전문가, 중독위험·藥効 감소

【全州=聯】 농민들은 대부분 농약살포작업을 대기가 상승하는 한낮에 하고있어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을뿐 아니라 약효도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농약제조기술을 지도하기위해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日産화학공업주식회사 농약사업부 기술담당 다끼구찌·요시히로(瀧口義廣)씨(日本人·32)가 우리나라 농촌을 돌아본후 지적한 문제점이다.

아세안 經協추진 綜合對策 마련을
貿易촉구

貿協은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에서 이룩된 협력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대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추진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GSP 혜택못봐 對美 수출업체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이 對美수출에있어 GSP(일반특혜관세)수혜신청서류의 기재미비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액수가 전체 對美GSP품목 수출액중 10·1%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7일 貿公이 발간한 81년도 『일반특혜관세제도실무』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아직도 GSP제도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지난해 對美GSP품목 총수출액 12억2천6백만달러가운데 10·1%에 달하는 1억2천4백만달러의 상품이 GSP수혜를 받지못한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㊽

中進國의 고뇌

국제과학재단(IFS)은 우리에겐 반성의 실마리였다. 78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과학재단 2차총회에서나는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이 재단의 창설동기부터그랬다. 74년 스웨덴 사람에의해 창설된 이 재단은 후진국의 문제가 뭐냐는데서 비롯되었다.

후진국 출신으로서 외국에 나가 공부한 두뇌가 고급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조국에 돌아갔다가도 나쁜 여건때문에 되돌아서는 경향이 많다는데 눈이 미쳤다. 그럴수록 후진국의 과학발전은 뒤질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특히 후진국이 우선해서 필요로 하는 농수산생약부문에 있어 유능한 두뇌를 확보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각국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절박된 후진국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따라서 후진국에 적을 두고, 후진국에서, 후진국을위해, 후진국이 필요로하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자는 발상에서 국제과학재단이 발기되었던 것이다.

회원국은 45개국. 우리나라 학술원도 가입되어있다. 발기국인 스웨덴이 제일많은 돈을내는것은 물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10개국에서매년 1만달러씩 출연하고 나머지 회원국은 연1백달러씩의 회비를내고있다.

국제과학재단은 이출연금을 기금으로 1인 연1만달러씩 4년동안의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78년 그해만해도 50개국 3백16명이 이연구비를 받고있었다. 그중엔 우리나라 사람도 3명이 끼어있었고 지금은 5명으로 수혜자가 늘었다.

會費는 적게내고 研究費타려니 難色

그때 총회에서 나는 연구비 지원대상을 넓힐것을 제의했다. 농수산등은 후진국으로서 중요한 분야이지만 에너지문제가심각해졌으니 대체에너지나 에너지 절약부문의 연구자와, 인구폭발과함께 주택문제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니 건축자재 연구부문에,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임목육종분야의 연구자에게도 연구비 수혜폭을 넓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내게 제의나 주장을 큰소리로 말할 자격이 없음을알게되었다. 겉으로는 의젓하려했으나 내심으로 自愧를 느꼈다.

우선 우리가 내는 회비부터가그랬다. 어느 국제회의석상에서나 우리는 후진국을 벗어나 앞서가는 중진국임을 자부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후진국 회비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기여하는것없이 받겠다고만 보채는 일이란 창피했다. 하물며 나이지리아까지 1만달러씩 출연하고 있는데…. 귀국후 나는 이같은 아쉬움을 학술원회장에게 설명하고 중진국 체면을 세울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보다 더 가슴아픈일은 우리를 내부에도사리고있는것이아닌가한다. 후진국의두뇌확보를위해다른나라가발벗고나서자금지원까지하는판에 중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그점을 소홀히 다루고 있으니 앞뒤가바뀐 느낌이 들었다.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두뇌가 조국과 외국사이에서 방황했던 사례를 우리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공업기술분야엔 그런대로 일찍눈을 돌려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나 공업에 치우치다보니 그외의 분야는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립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는 연구원의 빈곤을 면치못하고있다. 연구직 공무원의 봉급이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기때문에 대학이다 기업체다해서 좀더 좋은 조건을 찾아 빠져 나간다.

연구소나 대학교수나하는 선택이 봉급때문이어서는 안되는·일일뿐 아니라 이두분야의 봉급격차는 선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없다. 다만 각자의 소양에 따라 연구소와 대학으로 갈라져야할 문제인 것이다.

연구소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연구소는 마비상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스톡홀름의국제과학재단회의는내게 이같은 우려를 짙게 심어줬다.

◇77년 4월 정년퇴임을 하면서 당시 尹天柱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기념패를받았다。

후진국頭腦확보 支援은 커녕 內部문제로 방황

주간女性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인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강화,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30달러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 해 드립니다.
4 계절 계속 있읍니다.
☎: 465-9929 CALL GEORGE
C & L LIVE BAIT CO.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977-111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 풀타임 구함:
하루10시간 근무, BAY + BLOOR지역
☎: 968-9221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61 MAIN ST. 편의한 문의는 직접 내방 바람
☎: 694-7848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275
☎: 635-1038

가게 급매: 주매상 $4,500, 윗층에 3베드룸 있음
가장 적당한 OFFER자에게 양도코자 함
☎: 531-106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1-579-4507(WHITBY)

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한 주택매매및 전세:
Lakeshore & Royal York Rd.근처 Central Aircon., 4 Rms, Rec. Rm. ☎: 255-6849, 368-9018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SET UP하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461-9236 JACK PONG

포터블 켄·모어 세탁기 2년 사용
포터블 뷰막 드라이어 6개월 사용
☎: 497-9180

그로서리 및 야채가게 매매:
주매상 $7,000~$8,000(5일영업)
리스 4½년+5년 옵션, 렌트 $1,200(2500sq. 피트)
자본이 있고 경험있으면 더 높은 이윤및 매상가능
☎: 368-1917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769-4366(오후5시이후)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766-2020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781-7080

HAMBURGER PLACE FOR SALE
중심가에 위치, 긴 기간의 리스 완전 장비된 큰 주차장이 있음, 주매상 $6,500
☎: 741-9170 MRS. WOO A. E. LEPAGE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622-7162 미스타 리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리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FISH & CHIPS스토아 매매
오랫동안 잘 경영해온 비즈네스 매매코자 합니다
(가게+현대형 아파트)
모게지가 좋고 비지네스 시작하자 곧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읍니다. 파는 사람이 새로운 경영자를 위해 도움을 줄것입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751-7333
GOHEEN REALTY LTD., REALTOR

여권 분실

"여권분실": FINCH × BATHURST 아파트 안에서 분실하였기 공고합니다.
☎: 630-2450 조 영 주

구 혼

구 혼
26세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남자로 알뜰한 신부를 찾고 있읍니다.
☎: 1-387-2327 미스타 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8-0675 박 홍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30AM~1:00AM, 화: CLOSE
금, 토 10:30AM~2:00AM, 일 2:00PM~12:00PM
☎: 929-5048, 961-3539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80(R)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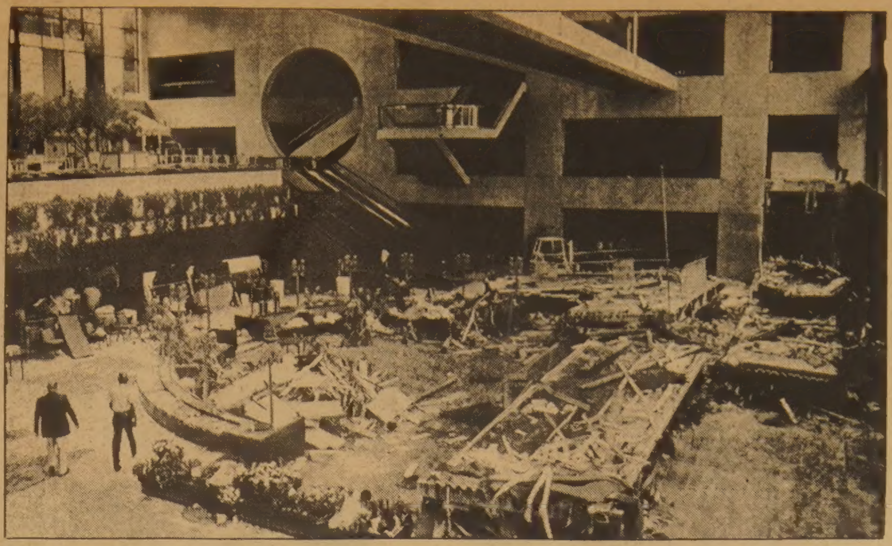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코스모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534-2003



◇기상천외의 참사현장—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다.

113명 춤추다 사망
호텔 구름다리 무너져

(캔사스시티, 미조리)17일밤 캔사스시티 하야트·리젠시 호텔내 구름다리가 무너져 113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호텔 로비 위에 75m 길이의 구름다리를 잡고 있던 철근빔이 4층에서 부터 떨어져 구름다리에서 춤을 즐기던 1,500 여명의 군중이 다리와 함께 떨어져 피해가 컸다.

사고원인 조사반은 구름다리 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춤을 추고 흔들어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 공사에 철근빔을 공급했던 철강회사 해븐스 사장은 "그 구름다리는 사람의 통행만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호텔은 캔사스시 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건물 재사용허가가 내릴 때까지 폐쇄된다.

사고가 난 호텔은 2년전 5천만달러를 들여 40층의 규모로 지은 것으로 건설공사중 현장 꼭대기에서 각목이 떨어져 한명의 인부가 죽은 사고가 있었다.

... 65세에 달했을때 정확히 149만3천454·65달러를 소유하게 된다.

1주일에 24병들이 맥주 1케이스를 소비한다면 1년에 660·40달러를 지출한다. 금주하고 이돈을 담배와 같은 방법으로 저축하면 39년 후에는 207만8천650·63달러를 가질수 있다.

잠깐, 소득세(인컴택스)는 안내나? 물론 세금은제산안했다.

그러나 금연자나 금주자가 정년퇴직 저축기금(RRSP)을 이용하면 일년에금연으로인한 474·50달러나 금주로 인한 660·40달러정도는 세금없이 저축할수있다.

물론 부칼로씨의 계산은 담배를 1달러 30센트로 고정시키고, 맥주값도 바뀌지 않는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가격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하락과 상쇄할수 있다. 또 이자율도 16%로 고정시켰으나 이자율이 오른다 해도 39년후 돈의 실제가치는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돈만 생각하고 또박또박 저축을 한다면 백만장자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인생은 돈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

교 민 동 정

◆김미영 (써알학교및 자택에서 민속무용 지도) = 최근 오빠 영웅씨가 서울서 오면서 북, 소고, 부채, 족도리등 무용장비를 가져다주는 바람에 용기백배.

김씨는 80년1월 온타리오 주정부에 한국민속무용연구소 창설을 등록했다. 배화여중고, 이대무용과를 나온 김씨는 아직 미혼이다.

신랑 : 이 참 오 군
신부 : 김 미 영 양
때 : 7월25일(토) 정오
곳 : 세인·폴 성당
(83 파워 스트릿)
주례 : 이 종 철 신부

신랑 : 임중군(주하순씨 4남)
신부 : 정희양(최건기씨 장녀)
일시 : 8월1일(토) 12시
장소 : 갈보리장로교회
주례 : 안병한 목사
피로연 : 하오2시 동궁식당

신랑 : 한문기씨장남석현군
신부 : 김창화씨장녀선애양
때 : 8월8일(토)낮 12시
곳 : 토론토한인 중앙교회
주례 : 정관일목사

학 생 캠 핑
천주교학생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학생회(중, 고교생)는 연례행사인 여름캠핑을 아래와같이 실시한다.

오는 31일부터 8월3일까지(3박4일) Earl Rowe Provincial(Area 1)에서 가지는 이번 캠핑의 회비는 25달러.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WAS LOCKED OUT OF MY CAR.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헐레벌떡 들어왔다。Why are you so late?「어떻게 이렇게 늦었읍니까?」하고 묻자 I was locked out of my car. 라고 대답 하였다。

이때의 lock은 잠그다의 뜻이므로 결국은 key를 차안에 두고 밖에서 문이 잠겨 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와 반대로 문이 밖으로 잠겨서 안에 갇히는상태인 경우는 lock in을 사용하여 「문이 잠겨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I was locked in. 이라고 하면된다.

또한 「문을 잠그시오」는 Lock the door. 이며 반대로 「문을 잠그지 마시오」 라고 할 때는 Don't lock the door. 혹은 leave를 사용하여 Leave the door open. 이다。

That's right. 는 상대방 이야기를 긍정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Is Kim your last name? 「김이 성이신가요?」라고 상대방이 물어왔을때 「그렇습니다」 That's right. 이라고 한다。

A : Why are you so late?
B : I couldn't find my key.
A : What do you mean?
B : I was locked out of my car.
A : You mean you left your key in the car?
B : That's right.
A : 왜 이렇게 늦으셨읍니까?
B :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A : 무슨 말씀 이신지요?
B : 차가 안으로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A : 차 안에 열쇠를 놔 두셨단 이야기신가요?
B : 그렇습니다。

註 mean : 의미하다。「이말은 무슨 뜻인가?」의 올바른 영역은 What's mean this word? 가 아니고 What does this word mean? 과 같이한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제공>

한국 7종목 74명 참가
유니버시아드, 북한불참

(부카레스트18일=연합)
북한은 19일 루마니아의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생들의 체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석치 못했다.

대회개막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3명의 북한대표들은 기자들에게 북한은약 40명의 선수단을보낼 예정이었으나 학기말 시험관계로 참석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팀은 대회개막전 열린 맥시코와의 테니스친선경기에서 맥시코팀을 4:0으로 물리쳤다.

한국팀은 남자배구, 남자농구, 레스링, 펜싱, 테니스, 체조, 육상의 7종목에 74명의 선수들을 보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세계 90개국에서 5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83년에열릴 다음 대회장소는 캐나다 에드몬톤이다.

어린이에게 태극뱃지

◇김창훈 총영사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 총영사관은 지난 19일 하오3시30분 퀘벡대학 강당에서 교민위안 영화의밤을 가졌다.

우편파업으로 편지 통보가 불가능 했으나 약 2백명의 교포가 모여 문화영화 「한국」과「태권도」, 극영화「가을비 우산속에」를 감상했다.

총영사관은 영화 상영후 어린이 들에게 태극뱃지를 달아주었다.

김창훈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자녀를 한글학교에보내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줄무엇을 원하고 있음을 한글학교 시찰에서 느꼈다. 오늘 영화상영도 이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총영사는 또한 한국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조국의 부강을 위해 교민들은 힘을합해 도와주어야 한다. 조국이 부강하면 그만큼교포도 부강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북한 비난

(도쿄17일=연합)일본법무성의 세수끼·오구노장관은 북한이 북송교포의 일본인처 모국귀환을 금지하고있는 처사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뜻을 나타냈다.

오구노장관은 "일본은인도적 견지에서 조총련계교포들의 북송을 허가해 왔지만 평양측은 아직도 북송교포의 일본인처 모국귀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각료 회의에서 밝혔다.

백만장자 되는 법(?)
금연·금주하라

쉽게(?) 백만장자가 되는 한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이다.

25세의 흡연자가 65세은퇴때 까지 담배에 소비 하는 돈의 총액은 무려 150만달러나 된다.

이 숫자는 보통사람의1년간 담배소비액에 연간16%의 이자율을 가산, 36년간 계산한 숫자이다.

이 숫자를 계산한 공인회계사 셀돈·부칼터 씨는 "16%의 이자율로 4년반만 지나면 원금은 2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부칼터씨의 계산에 의하면 25세의 청년이 1·30 달러의 킹사이즈담배를 하루 한갑씩 태운다면 1년에 474·50달러를 소비한다.

금연으로 이돈을 저축하고 1년후 16%이자율인 1년만기 채권을 산다. 이것을 36년간 반복하면 그가 ...

코리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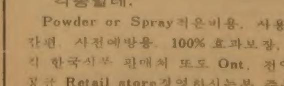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침

三國志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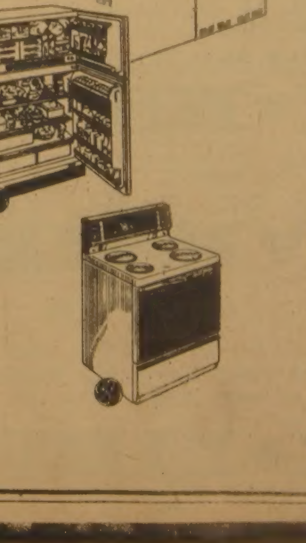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SUREK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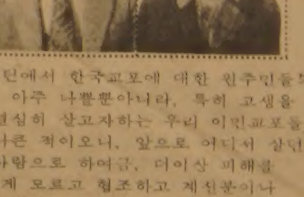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경우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배수
☎ : 255-6849, 255-0713

偉信電器地毡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WA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金東春을 찾습니다

①아르젠티나에서 약5년간 거주
②가족사항 : 본인 약40세, 부인 최금숙 약35세
아들 김자룡 7세
③사기행각 : 아르젠티나 중심가에서 옷가게를 개업하면서 약1년동안 많은 교포로부터 많은 사채와 물품, 자기앞 수표(원주민과의 거래)약50만불 이상의 상당한 거액을 해결치 않고 도망



알젠틴에서 한국교포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나빨뿐아니라, 특히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고자하는 우리 이민교포들에게 크나큰 적이오니, 앞으로 어디서 살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게 모르고 협조하고 계신분이나 거처를 아시는 분은 공관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81년7월14일

피해자대표 일동